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윤신희



An Analysis of Goyang Citize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연구책임자

윤신희(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 센터장/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이세훈(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도시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김지훈(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 위촉연구원)

박지영(前,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 위촉연구원)

고윤경(前,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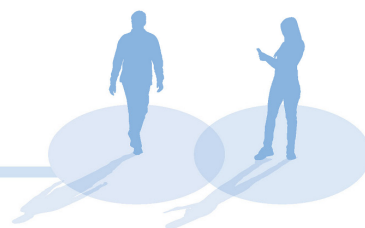
자료조사자

고양청년인턴200(前,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 통계조사원)

발행일 2021년 03월 31일
저자 윤신희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N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SBN 979-11-974414-3-1 93300 (비매품)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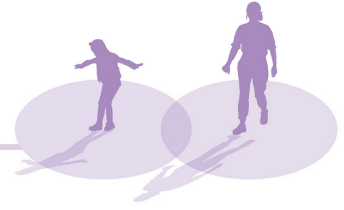


요 약

i

제1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개요	1
제2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항목별 분석	7
제3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성별 분석	15
제4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배우자 유·무별 분석	27
제5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자녀 유·무별 분석	39
제6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연령별 분석	51
제7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거주지별 분석	73
제8장 부록. 조사표	89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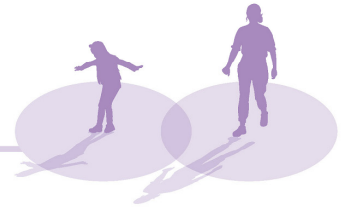


[표 1-1] 주요조사 내용	5
[표 1-2] 응답자 특성	6
[표 2-1] 고양시민의 학력	9
[표 2-2] 고양시민의 종교	9
[표 2-3] 고양시민의 직업	10
[표 2-4]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10
[표 2-5]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10
[표 2-6] 고양시민의 근무시간 형태	10
[표 2-7]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11
[표 2-8]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11
[표 2-9]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11
[표 2-10] 고양시민의 성향	12
[표 2-11]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12
[표 2-12]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12
[표 2-13]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12
[표 2-14]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13
[표 2-15]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13
[표 2-16]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13
[표 2-17]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14
[표 2-18]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14
[표 2-19]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14
[표 3-1]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17
[표 3-2]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18
[표 3-3] 고양시민의 직업	18

[표 3-4]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형태	19
[표 3-5]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19
[표 3-6]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전일제, 시간제 여부	19
[표 3-7]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20
[표 3-8]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21
[표 3-9]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21
[표 3-10]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21
[표 3-11]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22
[표 3-12]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22
[표 3-13]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22
[표 3-14]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23
[표 3-15]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23
[표 3-16]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24
[표 3-17]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24
[표 3-18]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25
[표 3-19]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25
[표 4-1]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29
[표 4-2]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30
[표 4-3]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30
[표 4-4]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31
[표 4-5]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31
[표 4-6]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32
[표 4-7]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32
[표 4-8]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33
[표 4-9]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33
[표 4-10]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34
[표 4-11]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34
[표 4-12]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35

[표 4-13]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35
[표 4-14]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36
[표 4-15]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36
[표 4-16]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37
[표 4-17]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37
[표 4-18]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38
[표 4-19]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38
[표 5-1]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41
[표 5-2]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42
[표 5-3]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42
[표 5-4]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43
[표 5-5]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43
[표 5-6]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	44
[표 5-7]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44
[표 5-8]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45
[표 5-9]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45
[표 5-10]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46
[표 5-11]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46
[표 5-12]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47
[표 5-13]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47
[표 5-14]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48
[표 5-15]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48
[표 5-16]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49
[표 5-17]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49
[표 5-18]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49
[표 5-19]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50

그림 목차



[그림 1-1] 통계조사 현장 팀 구성	4
[그림 6-1]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53
[그림 6-2]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54
[그림 6-3]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55
[그림 6-4]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57
[그림 6-5]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58
[그림 6-6]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	59
[그림 6-7]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60
[그림 6-8]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61
[그림 6-9]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62
[그림 6-10]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63
[그림 6-11]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64
[그림 6-12]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65
[그림 6-13]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66
[그림 6-14]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67
[그림 6-15]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68
[그림 6-16]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69
[그림 6-17]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69
[그림 6-18]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70
[그림 6-19]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71
[그림 7-1]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75
[그림 7-2]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76
[그림 7-3]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76
[그림 7-4]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77

[그림 7-5]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78
[그림 7-6]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78
[그림 7-7]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79
[그림 7-8]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80
[그림 7-9]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80
[그림 7-10]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81
[그림 7-11]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81
[그림 7-12]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82
[그림 7-13]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83
[그림 7-14]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83
[그림 7-15]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84
[그림 7-16]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85
[그림 7-17]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85
[그림 7-18]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86
[그림 7-19]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87

1. 조사 개요

조사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고양시 거주 시민들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민들의 개인 및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여 시정 정책 발굴 및 방향성 제고에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시민들의 직업, 소득, 월 평균 소득 등 세대 구성원, 통근 통학, 고향 애착도, 종교 등 전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질문을 기본으로 한다.

조사설계

- 조사 시기는 2020년 7월 20일~2020년 8월 7일까지 수행하였고, 조사대상은 고양시 39개 행정동별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본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총 조사 표본 수는 2,395이며 그 중 표집오차 검정을 통해 유의한 표본 2,281 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원 배정지역 및 인원 수

- 현장 조사는 39동을 기반으로 각 동마다 현장조사원 2명씩을 배치하여 진행하였다(조사원 배치 구역 지도 참조).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역에 대한 교육 또한 수행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39개 행정동 별로 2명의 조사원을 배치하고, 조사대상을 층화 계층하여 표집을 모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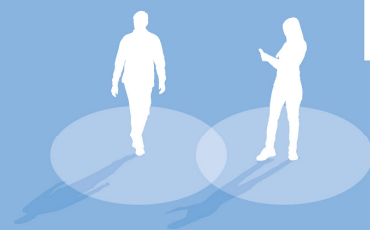
2. 전체 조사결과

- 고양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학력은 중졸 이하 5.7%, 고졸은 33.3%, 대졸은 54.4% 대학원 이상은 6.5%로 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는 무교가 43.8%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26.8%, 천주교는 13.6%, 불교는 13.5%, 기타2.2%의 순을 보인다.
- 직업은 '가정주부'가 1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무직' 13.5%, '자영업' 13.2%, '사무종사자' 10.8%, '서비스 종사자' 1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3%, '기타' 8.6%, '학생' 6.5%, '관리자' 5.4%, '단순노무종사자' 3.2%, '판매종사자' 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근무 형태는 주 5일제가 58.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주 6일제' 18.9%, '기타' 13.1%, '토요일 격주 휴무제' 4.6%, '격일 근무제' 3.7%, '월 1회 휴무제'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유형은 '상용직(1년 이상)'이 77.1%,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6%, '일용직(1개월 미만)'이 3.4%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근무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69.3%, '시간제'가 21.1%였으며 그 외 '기타' 9.5%로 조사되었다.
- 주요 소득원 분포를 보면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5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24.0%)', '기타(6.7%)',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3.9%)', '정부의 보조금(3.1%)',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2.0%)', '친인척의 보조금(0.4%)',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0.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299만원'이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0~399만원'이 15.3%, '400~499만원'이 14.5%, '500~599만원'이 12.2%, '700만원 이상'이 11.0% '100~199만원'이 9.0%, '600~699만원'이 7.3%를 보인다.
-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면 '최하층' 14.5%, '중하층' 57.4%, '중상층' 27.8%, '최상층' 0.4%로 '중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가장 많았다.
-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은 '중도진보'가 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도보수' 25.5%, '진보' 16.7%, '보수' 12.3%순을 보인다.
- 가족 구성원 수는 평균 3.17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미혼 자녀', '부모(본인부모)', '1인 가구', '기타', '기혼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손자손녀', '친인척'과 함께 사는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 거주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연립·다세대 주택이 13.9%, 단독주택이 7.9%, 기타 4.3% 순으로 나타났다.
-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20.8%, 보증금 있는 월세 11.4%, 무상 2.3%, 보증금 없는 월세 1.3%로 나타났다.
-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을 살펴보면 '고양시 내'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통근/통학)안함'이 31.6%, '서울 강북'이 6.9%, '서울 강남'이 4.6%, '경기 북부'이 3.4%, '그 외 지역'이 3.1%, 그리고 '경기 남부'가 1.8%로 나타났다.
- 출근 및 통학 수단은 '개인 승용차'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31.2%, '버스' 16.6%, '전철 및 지하철' 9.6%, '도보' 8.9%, '개인 모빌리티' 1.1%, 'KTX' 0.2%, '택시' 0.1%의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 거주 기간은 평균 16.8년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38.5%, '어느 정도 그렇다'가 34.9%, '보통이다' 1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 '전혀 그렇지 않다' 1.7%로 긍정적인 의견이 73.4%로 높았다.
- 고양시에 대한 애착도를 물어본 결과 고양시민(응답자)들의 63.3%가 고양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도 매우 많음'과 '애착도 조금 있음'은 각각 36.0%와 27.3%로 나타났다. '애착도 전혀 없음'과 '애착도 없는 편임'은 각각 1.1%와 3.7%로 나타났다.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1 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본 조사는 고양시 거주 시민들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민들의 개인 및 집단 특성을 파악하여 시정 정책 발굴 및 방향성 제고에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시민들의 직업, 소득, 월 평균 소득 등 세대 구성원, 통근 통학, 고향 애착도, 종교 등 전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질문을 기본으로 한다.

2. 조사설계

조사 시기는 2020년 7월 20일~2020년 8월 7일까지 수행하였고, 조사대상은 고양시 39개 행정동별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본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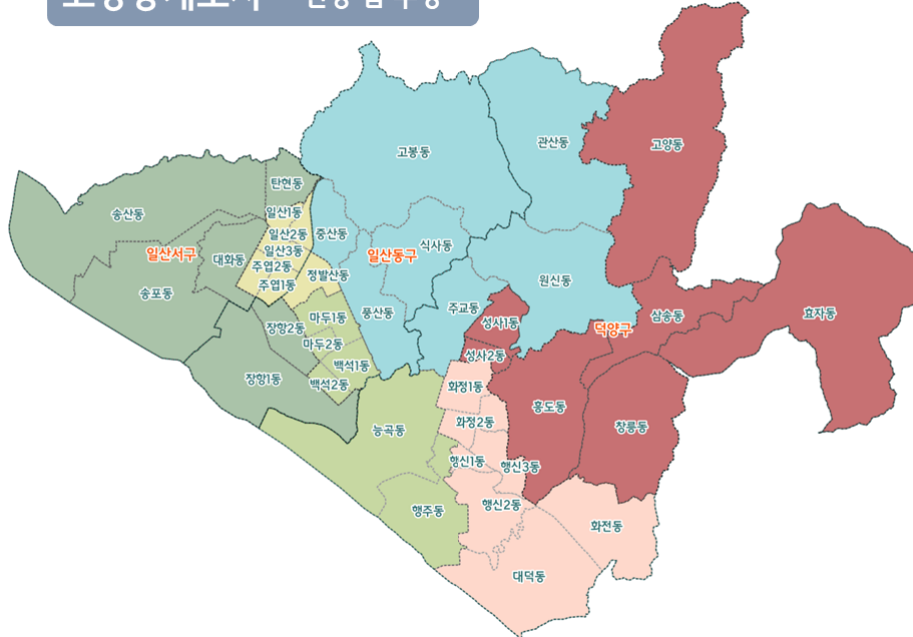
총 조사 표본수는 2,395이며 그중 표집오차 검정을 통해 유의한 표본 2,281 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조사원 배정지역 및 인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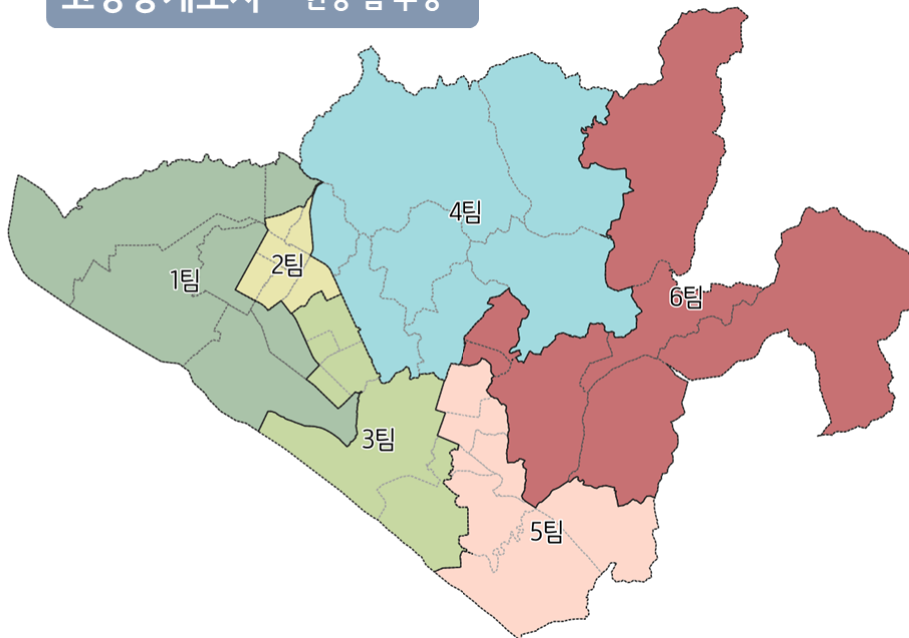
현장 조사는 39동을 기반으로 각 동마다 현장조사원 2명씩을 배치하여 진행하였다(조사원 배치 구역 지도 참조).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역에 대한 교육 또한 수행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39개 행정동 별로 2명의 조사원을 배치하고, 조사대상을 층화 계층하여 표집을 모집하였다.

그림 1-1 통계조사 현장 팀 구성

고양통계조사 - 현장 팀 구성 -



고양통계조사 - 현장 팀 구성 -



4. 주요조사 내용

[표 1-1] 주요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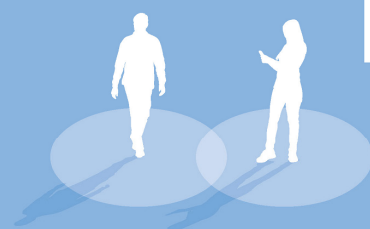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일반사항	<div>■성별</div> <div>■배우자 유무</div> <div>■자녀 유무</div> <div>■거주지</div> <div>■연령</div> <div>■휴대폰 번호</div> <div>■이메일 주소</div>
인구사회학적 사항	<div>■학력</div> <div>■종교</div> <div>■직업(직업, 근무형태, 근무유형, 시간제 또는 전일제 여부)</div> <div>■가구 주 소득원</div> <div>■가구 월 평균소득</div> <div>■사회·경제적 계층</div> <div>■성향(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div> <div>■세대 구성원(인원)</div> <div>■세대 구성원(구성)</div> <div>■거주지 주택형태</div> <div>■거주지 점유형태</div> <div>■통근·통학 지역</div> <div>■통근·통학 교통수단</div> <div>■고양시 거주기간(거주기간, 거주지속여부)</div> <div>■고양시 애착도</div>

5. 응답자 특성

[표 1-2] 응답자 특성

응답자 기본 정보		사례수(명)	비율(%)
전체		2,281	100
성별	남자	988	43.3
	여자	1,293	56.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56	63.8
	배우자 없음	825	36.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570	68.8
	자녀 없음	711	31.2
연령	10~20대	383	16.8
	30대	281	12.3
	40대	413	18.1
	50대	650	28.5
	60대	348	15.3
	70대	149	6.5
	80대 이상	57	2.5
거주지(구)	일산동구	647	28.4
	일산서구	521	22.8
	덕양구	1,113	48.8

●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2 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항목별 분석

제1절 항목별 분석

1. 학력

응답자 전체의 학력 분포를 보면, 중졸 이하 5.7%, 고졸 33.3%, 대졸 54.4% 대학원 이상 6.5%로 대졸이 가장 많다.

[표 2-1] 고양시민의 학력

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전체	5.7%	33.3%	54.4%	6.5%

2. 종교

응답자 전체의 종교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개신교는 26.8%, 불교는 13.5%, 천주교는 13.6%, 기타2.2%, 무교 43.8%로 믿고 있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2-2] 고양시민의 종교

문2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다(무교)
전체	26.8%	13.5%	13.6%	2.2%	43.8%

3. 직업

응답자 전체의 직업 분포는 ‘가정주부’가 1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무직’ 13.5%, ‘자영업’ 13.2%, ‘사무종사자’ 10.8%, ‘서비스 종사자’ 1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3%, ‘기타’ 8.6%, ‘학생’ 6.5%, ‘관리자’ 5.4%, ‘단순노무종사자’ 3.2%, ‘판매종사자’ 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농림어업 축산업종사자’ 0.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고양시민의 직업

문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축 산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체	5.4%	9.3%	10.8%	10.6%	2.1%	0.4%	1.4%

[표 2-3] 계속

문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영업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전체	0.4%	3.2%	13.2%	14.6%	6.5%	13.5%	8.6%

(1) 근무 형태

응답자 전체의 근무 형태는 주 5일제가 58.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주 6일제’ 18.9%, ‘기타’ 13.1%, ‘토요일 격주 휴무제’ 4.6%, ‘격일 근무제’ 3.7%, ‘월 1회 휴무제’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문3-1	주 6일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주 5일제	월 1회 휴무제	격일 근무제	기타
전체	18.9%	4.6%	58.5%	1.2%	3.7%	13.1%

(2) 근무 유형

응답자 전체의 근무 유형은 ‘상용직(1년 이상)’이 77.1%,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6%, ‘일용직(1개월 미만)’이 3.4%로 나타났다.

[표 2-5]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문3-2	상용직 (1년 이상)	임시직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 (1개월 미만)
전체	77.1%	19.6%	3.4%

(3) 시간제, 전일제 여부

응답자 전체의 근무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69.3%, ‘시간제’가 21.1%였으며 그 외 ‘기타’ 9.5%로 조사되었다.

[표 2-6] 고양시민의 근무시간 형태

문 3-3	전일제	시간제	기타
전체	69.3%	21.1%	9.5%

4. 주요 소득원

응답자 전체의 주요 소득원 분포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5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24.0%)’, ‘기타(6.7%)’,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3.9%)’, ‘정부의 보조금(3.1%)’,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2.0%)’, ‘친인척의 보조금(0.4%)’,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문4	가구주의 근로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정부의 보조금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의 보조금	기타
전체	59.6%	24.0%	2.0%	3.9%	3.1%	0.3%	0.4%	6.7%

5. 월 평균 가구소득

응답자 전체의 월 평균 가구소득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0~299만원’이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0~399만원’이 15.3%, ‘400~499만원’이 14.5%, ‘500~599만원’이 12.2%, ‘700만원 이상’이 11.0% ‘100~199만원’이 9.0%, ‘600~699만원’이 7.3%였다.

[표 2-8]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문5	99만원 이하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599 만원	600~699 만원	700만원 이상
전체	9.0%	9.9%	20.8%	15.3%	14.5%	12.2%	7.3%	11.0%

6. 사회·경제적 위치

응답자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최하층’ 14.5%, ‘중하층’ 57.4%, ‘중상층’ 27.8%, ‘최상층’ 0.4%로 고양시민들은 중하층 정도의 사회·경제적 위치라고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표 2-9]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6	최하층	중하층	중상층	최상층
전체	14.5%	57.4%	27.8%	0.4%

7. 성향

응답자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성향 분포는 ‘중도진보’가 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도보수’ 25.5%, ‘진보’ 16.7%, ‘보수’ 12.3%였다.

[표 2-10] 고양시민의 성향(단위: %)

문7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
전체	16.7%	45.5%	25.5%	12.3%

8. 가족 구성원 수

응답자 전체의 가족 구성원 수 평균은 3.17명으로 나타났다.

[표 2-11]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문8	평균
전체	3.17명

9. 가족 구성원

응답자 전체의 가족 구성원을 빈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미혼)’, ‘부모(본인부모)’, ‘1인 거주’, ‘기타’, ‘자녀(기혼)’, ‘부모(배우자 부모)’, ‘손자손녀’, ‘친인척’과 함께 사는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2]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문9 (빈도)	배우자	부모 (본인부모)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기혼)	자녀 (미혼)	손자 손녀	친인척	1인 거주	기타
전체(빈도)	1,300	511	77	162	1,007	48	37	244	176

10. 주거형태

응답자 전체의 주거형태 분포는 아파트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연립·다세대 주택이 13.9%, 단독주택이 7.9%, 기타 4.3%로 나타났다.

[표 2-13]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단위: %)

문10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전체	7.9%	73.8%	13.9%	4.3%

11. 점유형태

응답자 전체의 주거 점유 형태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20.8%, 보증금 있는 월세 11.4%, 무상 2.3%, 보증금 없는 월세 1.3%로 나타났다.

[표 2-14]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문11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전체	64.2%	20.8%	11.4%	1.3%	2.3%

12. 출근 및 통학 지역

응답자 전체의 출근 및 통학 지역을 살펴보면 ‘고양시 내’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통근/통학)안함’이 31.6%, ‘서울 강북’이 6.9%, ‘서울 강남’이 4.6%, ‘경기 북부’이 3.4%, ‘그 외 지역’이 3.1%, 그리고 ‘경기 남부’가 1.8%였다.

[표 2-15]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단위: %)

문12	고양시 내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그 외 지역	출퇴근(통근/통학) 안함
전체	48.7%	4.6%	6.9%	3.4%	1.8%	3.1%	31.6%

13. 출근 및 통학 수단

응답자 전체의 출근 및 통학 수단은 ‘개인 승용차’가 32.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31.2%, ‘버스’ 16.6%, ‘전철 및 지하철’ 9.6%, ‘도보’ 8.9%, ‘개인 모빌리티’ 1.1%, ‘KTX’ 0.2%, ‘택시’ 0.1%의 비중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문13	개인 승용차	버스	택시	전철 및 지하철	KTX	개인 모빌리티	공유 모빌리티	도보	기타
전체	32.2%	16.6%	0.1%	9.6%	0.2%	1.1%	0.0%	8.9%	31.2%

14. 거주 기간 및 지속 여부

(1) 거주 기간

응답자 전체의 거주 기간은 평균 16.8년으로 나타났다.

[표 2-17]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문14	평균
전체	16.8년

(2) 지속 의향

고양시에 계속 살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매우 그렇다’가 38.5%, ‘어느 정도 그렇다’가 34.9%, ‘보통이다’ 1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 ‘전혀 그렇지 않다’ 1.7%로 지속 거주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73.4%로 매우 높았다.

[표 2-18]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단위: %)

문 14-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7%	5.7%	19.3%	34.9%	38.5%

15. 애착도

응답자 전체의 고양시에 대한 애착도는 다음과 같다. ‘애착도 매우 많음’과 ‘애착도 조금 있음’은 각각 36.0%와 27.3%로 나타났다. ‘애착도 전혀 없음’과 ‘애착도 없는 편임’은 각각 1.1%와 3.7%로 나타났다.

고양시민(응답자)들의 63.3%가 고양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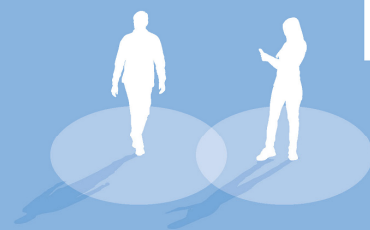
[표 2-19]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단위: %)

문15	애착도 전혀 없음	애착도 없는 편임	보통	애착도 조금 있음	애착도 매우 많음
전체	1.1%	3.7%	31.9%	27.3%	36.0%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3 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성별 분석

제1절 성별 분석

1. 학력

학력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대졸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세부 학력을 보면 중졸 이하가 4.9%, 고졸 31.8%, 대졸 54.5%, 대학원 이상 8.9%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중졸 이하가 6.4%, 고졸이 34.5%, 대졸이 54.4%, 대학원 이상이 4.7%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 고졸은 2.7% 많았으며, 대졸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0.1% 많았다.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4.2% 많았다.

[표 3-1]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성별	남	4.9%	31.8%	54.5%	8.9%
	여	6.4%	34.5%	54.4%	4.7%
차이(남-여)		-1.6%	-2.7%	0.1%	4.2%

2. 종교

믿고 있는 종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믿고 있는 종교가 없는 경우(무교)가 가장 많았고,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신교는 여성이 3.9% 높았고, 불교는 남성이 0.9%, 천주교는 여성이 3.3%, 기타도 여성이 0.4% 높았다.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은 남성이 6.8%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개신교가 24.6%, 불교가 14.1%, 천주교가 11.7%, 기타 2.0%, 무교 47.6%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개신교가 28.5%, 불교가 13.1%, 천주교가 15.0%, 기타 2.4%, 무교 41.0%를 보인다.

[표 3-2]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문2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다(무교)
성별	남	24.6%	14.1%	11.7%	2.0%	47.6%
	여	28.5%	13.1%	15.0%	2.4%	41.0%
차이(남-여)		-3.9%	0.9%	-3.3%	-0.4%	6.6%

3. 직업

직업의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가정주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관리자’ 1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5%, ‘사무종사자’ 10.5%, ‘서비스종사자’ 9.3%, ‘판매종사자’ 2.1%,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8%, ‘단순노무종사자’ 3.4%, ‘자영업’ 17.1%, ‘가정주부’ 0.1%, ‘학생’ 7.4%, ‘무직’ 16.6%, ‘기타’가 9.0%였다.

여성의 경우 ‘관리자’ 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 ‘사무종사자’ 11.0%, ‘서비스종사자’ 11.5%, ‘판매종사자’ 2.2%,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2%, ‘단순노무종사자’ 3.0%, ‘자영업’ 10.1%, ‘가정주부’ 25.6%, ‘학생’ 5.9%, ‘무직’ 11.1%, ‘기타’는 8.3%였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영업’, ‘학생’, ‘무직’, ‘기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8.2%, 2.2%, 0.5%, 1.6%, 0.7%, 0.4%, 7.0%, 1.5%, 5.5%, 0.7%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가정주부’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각각 0.5%, 2.2%, 25.5%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 고양시민의 직업

문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축 산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성별	남	10.0%	10.5%	10.5%	9.3%	2.1%	0.7%	2.3%
	여	1.9%	8.4%	11.0%	11.5%	2.2%	0.2%	0.7%
차이(남-여)		8.2%	2.2%	-0.5%	-2.2%	0.0%	0.5%	1.6%
문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영업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성별	남	0.8%	3.4%	17.1%	0.1%	7.4%	16.6%	9.0%
	여	0.2%	3.0%	10.1%	25.6%	5.9%	11.1%	8.3%
차이(남-여)		0.7%	0.4%	7.0%	-25.5%	1.5%	5.5%	0.7%

(1) 근무 형태

근무하고 있는 형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성과 여성 모두 ‘주 5일제’의 근무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 6일제’와 ‘토요일 격주 휴무제’는 같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 5일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1% 높았다. ‘월 1회 휴무제’와 ‘격일 근무제’, 그리고 ‘기타’는 각각 0.1%, 2.1%, 1.8%정도 남성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주 6일제’는 18.9%, ‘토요일 격주 휴무제’는 4.6%, ‘주 5일제’는 56.4%, ‘월 1회 휴무제’는 1.3%, ‘격일 근무제’는 4.7%, ‘기타’는 1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주 6일제’는 18.9%, ‘토요일 격주 휴무제’는 4.6%, ‘주 5일제’는 60.5%, ‘월 1회 휴무제’는 1.2%, ‘격일 근무제’는 2.6%, ‘기타’는 12.2%로 나타났다.

[표 3-4]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형태

문3-1		주 6일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주 5일제	월 1회 휴무제	격일 근무제	기타
성별	남	18.9%	4.6%	56.4%	1.3%	4.7%	14.0%
	여	18.9%	4.6%	60.5%	1.2%	2.6%	12.2%
차이(남-여)		0.0%	0.0%	-4.1%	0.1%	2.1%	1.8%

(2) 근무 유형

근무 유형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과 여성 모두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남성이 5.5% 많았고, ‘임시직’은 여성이 7.4% 많았다. 일용직의 비중은 남성이 1.9%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1년 이상의 ‘상용직’이 79.9%,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이 15.8%, 1개월 미만의 ‘일용직’이 4.3%였으며, 여성의 경우 ‘상용직’이 74.4%, ‘임시직’이 23.2%, ‘일용직’이 2.4%로 나타났다.

[표 3-5]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문3-2		상용직 (1년 이상)	임시직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 (1개월 미만)
성별	남	79.9%	15.8%	4.3%
	여	74.4%	23.2%	2.4%
차이(남-여)		5.5%	-7.4%	1.9%

(3) 시간제, 전일제 여부

기간제의 전일제, 시간제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일제’가 74.2%, ‘시간제’가 14.8%, ‘기타’ 11.0%였고, 여성의 경우 ‘전일제’가 64.8%, ‘시간제’가 27.1%, ‘기타’가 8.1%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전일제’ 일자리의 비중이 높았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일제’는 남성이 9.4%, ‘시간제’는 여성이 12.3%, ‘기타’는 남성이 2.9%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전일제, 시간제 여부

문 3-3		전일제	시간제	기타
성별	남	74.2%	14.8%	11.0%
	여	64.8%	27.1%	8.1%
차이(남-여)		9.4%	-12.3%	2.9%

4. 주요 소득원

주요 소득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소득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67.8%,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11.3%,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가 2.4%,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이 5.2%, '정부의 보조금'이 3.7%,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이 0.3%, '친인척의 보조금'이 0.4%, '기타' 8.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63.4%,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33.7%,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가 1.7%,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이 2.9%, '정부의 보조금'이 2.6%,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이 0.3%, '친인척의 보조금'이 0.3%, '기타' 5.1%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남성이 14.4%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여성이 22.4%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산소득'은 0.7%,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은 2.2%, '정부의 보조금'은 1.2%, '친인척의 보조금'은 0.1%, '기타'는 3.7%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3-7]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문4		가구주의 근로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정부의 보조금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의 보조금	기타
성별	남	67.8%	11.3%	2.4%	5.2%	3.7%	0.3%	0.4%	8.8%
	여	53.4%	33.7%	1.7%	2.9%	2.6%	0.3%	0.3%	5.1%
차이(남-여)		14.4%	-22.4%	0.7%	2.2%	1.2%	0.0%	0.1%	3.7%

5.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0~299만원' 가구 소득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99만원 이하'는 9.9%, '100~199만원'은 10.4%, '200~299만원'은 20.1%, '300~399만원'은 16.2%, '400~499만원'은 13.1%, '500~599만원'은 12.1%, '600~699만원'은 6.6%, '700만원 이상'은 11.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99만원 이하'는 8.4%, '100~199만원'은 9.4%, '200~299만원'은 21.3%, '300~399만원'은 14.6%, '400~499만원'은 15.6%, '500~599만원'은 12.2%, '600~699만원'은 7.8%, '700만원 이상'은 10.6%였다.

남녀의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99만원 이하'와 '100~199만원'은 각각 남성이 1.6%, 1.0%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299만원'은 여성이 1.2%만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0~399만원'은 남성이 1.6%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은 각각 여성이 2.6%, 0.1%, 1.2%만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0.9% 높았다.

[표 3-8]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문5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성별	남	9.9%	10.4%	20.1%	16.2%	13.1%	12.1%	6.6%	11.5%
	여	8.4%	9.4%	21.3%	14.6%	15.6%	12.2%	7.8%	10.6%
차이(남-여)		1.6%	1.0%	-1.2%	1.6%	-2.6%	-0.1%	-1.2%	0.9%

6. 사회·경제적 위치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 인식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

남성의 경우 ‘최하층’ 16.3%, ‘중하층’ 54.0%, ‘중상층’ 29.3%, ‘최상층’ 0.4%의 분포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 ‘최하층’ 13.1%, ‘중하층’ 59.9%, ‘중상층’ 26.6%, ‘최상층’ 0.3%의 분포를 나타냈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하층’의 경우 남성이 3.1%, ‘중하층’의 경우 여성이 5.9%, ‘중상층’의 경우 남성이 2.6%, ‘최상층’의 경우도 남성이 0.1% 더 높았다.

[표 3-9]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6		최하층	중하층	중상층	최상층
성별	남	16.3%	54.0%	29.3%	0.4%
	여	13.1%	59.9%	26.6%	0.3%
차이(남-여)		3.1%	-5.9%	2.6%	0.1%

7. 성향

자신의 성향 인식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중도진보’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진보’ 18.1%, ‘중도진보’ 39.0%, ‘중도보수’ 27.0%, ‘보수’ 15.8%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진보’ 15.7%, ‘중도진보’ 50.5%, ‘중도보수’ 24.2%, ‘보수’ 9.6%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의 경우 남성이 2.5%, ‘중도진보’의 경우 여성이 11.4%, ‘중도보수’의 경우 남성이 2.8%, ‘보수’의 경우 남성이 6.2%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10]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문7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
성별	남	18.1%	39.0%	27.0%	15.8%
	여	15.7%	50.5%	24.2%	9.6%
차이(남-여)		2.5%	-11.4%	2.8%	6.2%

8. 가족 구성원 수

가족 구성원 수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응답 평균은 3.08명, 여성의 응답 평균은 3.24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문8		평균(명)
성별	남	3.08명
	여	3.24명

9.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57.5%, ‘부모(본인부모)’ 26.9%, ‘부모(배우자부모)’ 3.1%, ‘자녀(기혼)’ 7.1%, ‘자녀(미혼)’ 39.8%, ‘손자손녀’ 2.3%, ‘친인척’ 2.2%, ‘1인거주’ 11.4%, ‘기타’ 7.4%였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59.8%, ‘부모(본인부모)’ 20.1%, ‘부모(배우자부모)’ 3.8%, ‘자녀(기혼)’ 7.5%, ‘자녀(미혼)’ 50.0%, ‘손자손녀’ 2.1%, ‘친인척’ 1.3%, ‘1인 거주’ 10.7%, ‘기타’ 8.4%였다.

[표 3-12]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문9 (복수응답)		배우자	부모 (본인부모)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기혼)	자녀 (미혼)	손자 손녀	친인척	1인 거주	기타
성별	남	57.5%	26.9%	3.1%	7.1%	39.8%	2.3%	2.2%	11.4%	7.4%
	여	59.8%	20.1%	3.8%	7.5%	50.0%	2.1%	1.3%	10.7%	8.4%
차이(남-여)		-2.4%	6.8%	-0.7%	-0.4%	-10.3%	0.2%	0.9%	0.7%	-1.0%

10. 주거형태

주거형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단독주택’ 10.2%, ‘아파트’ 70.1%, ‘연립, 다세대주택’ 14.2%, 기타 5.5%였다. 여성의 경우 ‘아파트’ 76.6%, ‘단독주택’ 6.1%, ‘연립, 다세대주택’ 13.8%, ‘기타’ 3.5%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3-13]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문10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성별	남	10.2%	70.1%	14.2%	5.5%
	여	6.1%	76.6%	13.8%	3.5%
차이(남-여)		4.1%	-6.5%	0.4%	2.0%

11. 점유형태

점유형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자기 집’이 62.3%, ‘전세’가 21.0%,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11.9%,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1.9%, ‘무상’ 2.8%였고 여성의 경우 ‘자기 집’ 65.6%, ‘전세’ 20.7%, ‘보증금 있는 월세’는 11.0%, ‘보증금 없는 월세’는 0.8%, ‘무상’은 1.9%였다.

[표 3-14]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문11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성별	남	62.3%	21.0%	11.9%	1.9%	2.8%
	여	65.6%	20.7%	11.0%	0.8%	1.9%
차이(남-여)		-3.2%	0.2%	1.0%	1.1%	0.9%

12. 출근 및 통학 지역

출근 및 통학 지역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고양시 내로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경우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고양시 내’ 51.5%, ‘서울 강남’ 6.5%, ‘서울 강북’ 9.1%, ‘경기 북부’ 3.5%, ‘경기 남부’ 2.4%, ‘그 외 지역’ 5.3%, ‘출퇴근(통근/통학) 안함’이 21.7%였다. 여성의 경우 ‘고양시 내’ 46.5%, ‘서울 강남’ 3.1%, ‘서울 강북’ 5.2%, ‘경기 북부’ 3.3%, ‘경기 남부’ 1.3%, ‘그 외 지역’ 1.4%, ‘출퇴근 안함’ 39.2%였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각각 ‘고양시 내’ 5%, ‘서울 강남’ 3.4%, ‘서울 강북’ 3.9%, ‘경기 북부’ 0.2%, ‘경기 남부’ 1.1%, ‘그 외 지역’ 3.9% 더 높았다. 이외에 ‘출퇴근(통근/통학) 안함’의 비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6% 높았다.

[표 3-15]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문12		고양시 내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그 외 지역	출퇴근(통근/통학) 안함
성별	남	51.5%	6.5%	9.1%	3.5%	2.4%	5.3%	21.7%
	여	46.5%	3.1%	5.2%	3.3%	1.3%	1.4%	39.2%
차이(남-여)		5.0%	3.4%	3.9%	0.2%	1.1%	3.9%	-17.6%

13. 출근 및 통학 수단

출근 및 통학 수단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개인 승용차’로 출근 및 통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기타’ 수단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개인 승용차’가 41.8%, ‘버스’ 14.6%, ‘택시’ 0%, ‘전철 및 지하철’ 12.4%, ‘KTX’ 0.2%, ‘개인 모빌리티’ 1.5%, ‘공유모빌리티’ 0.1%, ‘도보’ 8.2%, ‘기타’ 21.2%였으며, 여성의 경우 ‘개인 승용차’ 24.8%, ‘버스’ 18.2%, ‘택시’ 0.2%, ‘전철 및 지하철’ 7.4%, ‘KTX’ 0.2%, ‘개인 모빌리티’ 0.9%, ‘공유모빌리티’ 0.0%, ‘도보’ 9.5%, ‘기타’ 38.8%였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 승용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17.0% 많았고, ‘버스’와 ‘택시’의 경우 각각 남성에 비해 여성이 3.6%, 0.2% 높았다. 전철 및 지하철은 남성의 경우가 5.0% 더 높았으며 ‘KTX’는 차이가 없었다. ‘개인 모빌리티’와 ‘공유 모빌리티’는 남성의 이용비중이 각각 0.7%, 0.1% 높았다. ‘도보’와 ‘기타’는 여성이 사용하는 비중이 각각 1.3%, 17.7% 높았다.

[표 3-16]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문13		개인 승용차	버스	택시	전철 및 지하철	KTX	개인 모빌리티	공유 모빌리티	도보	기타
성별	남	41.8%	14.6%	0.0%	12.4%	0.2%	1.5%	0.1%	8.2%	21.2%
	여	24.8%	18.2%	0.2%	7.4%	0.2%	0.9%	0.0%	9.5%	38.8%
차이(남-여)		17.0%	-3.6%	-0.2%	5.0%	0.0%	0.7%	0.1%	-1.3%	-17.7%

14. 거주 기간 및 지속 여부

(1) 거주 기간

고양시 거주기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평균 16.9년, 여성의 경우 평균 16.7년으로 나타났으며 차이는 0.2년 이었다.

[표 3-17]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문14		평균
성별	남	16.9년
	여	16.7년

(2) 지속 의향

고양시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에 관한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고양시에 지속 거주하겠다(어느 정도+매우)’는 의사가 70%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 ‘보통이다’ 20.0%, ‘어느 정도 그렇다’

36.0%, ‘매우 그렇다’ 36.8%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5.9%, ‘보통이다’ 18.7%, ‘어느 정도 그렇다’ 34.1%, ‘매우 그렇다’ 39.8%였다.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0.4%, 1.2%, 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0.5%, 3.0% 더 높았다.

[표 3-18]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문 14-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1.9%	5.4%	20.0%	36.0%	36.8%
	여	1.5%	5.9%	18.7%	34.1%	39.8%
차이(남-여)		0.4%	-0.5%	1.2%	1.9%	-3.0%

15. 애착도

고양시에 대한 애착도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고양시에 ‘애착도 매우 많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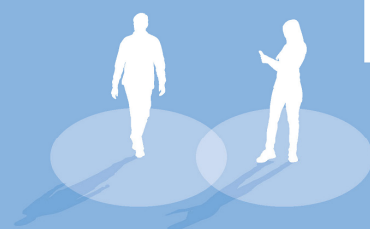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6%, ‘애착도 없는 편임’ 4.3%, ‘보통’ 32.8%, ‘애착도 조금 있음’ 28.2%, ‘애착도 매우 많음’ 33.1%였으며 여성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0.8%, ‘애착도 없는 편임’ 3.2%, ‘보통’ 31.2%, ‘애착도 조금 있음’ 26.5%, ‘애착도 매우 많음’ 38.3%였다.

남녀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애착도 매우 많음’을 제외하고 남성이 ‘애착도 전혀 없음’, ‘애착도 없는 편임’, ‘보통’, ‘애착도 조금 있음’에서 각각 0.8%, 1.0%, 1.6%, 1.7% 더 높았다.

[표 3-19] 성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문15		애착도 전혀 없음	애착도 없는 편임	보통	애착도 조금 있음	애착도 매우 많음
성별	남	1.6%	4.3%	32.8%	28.2%	33.1%
	여	0.8%	3.2%	31.2%	26.5%	38.3%
차이(남-여)		0.8%	1.0%	1.6%	1.7%	-5.2%

●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4 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배우자 유·무별 분석

제1절 배우자 유·무별 분석

1. 학력

응답자의 학력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대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졸 이하’는 4.5%, ‘고졸’은 32.1%, ‘대졸’은 55.5% ‘대학원 이상’은 7.9%였다. 여성의 경우 ‘중졸 이하’는 4.5%, ‘고졸’은 32.1%, ‘대졸’은 55.5% ‘대학원 이상’은 7.9%였다.

배우자 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각 3.5%, 3.3%만큼 더 높았으며,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각각 3.0%, 3.8%만큼 더 많았다.

[표 4-1]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5%	32.1%	55.5%	7.9%
	배우자 없음	8.0%	35.4%	52.5%	4.1%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3.5%	-3.3%	3.0%	3.8%

2. 종교

응답자의 종교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신교’는 28.8%, ‘불교’는 15.2%, ‘천주교’는 14.6%, ‘기타’는 2.3%, ‘없다(무교)’는 39.0%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개신교’는 23.2%, ‘불교’는 10.5%, ‘천주교’는 11.8%, ‘기타’는 2.2%, ‘없다(무교)’는 52.4%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종교가 ‘없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각각 5.7%, 4.7%, 2.9%, 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문2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다(무교)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8%	15.2%	14.6%	2.3%	39.0%
	배우자 없음	23.2%	10.5%	11.8%	2.2%	52.4%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5.7%	4.7%	2.9%	0.1%	-13.4%

3. 직업

응답자의 직업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정주부, 자영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군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무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6.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4%, ‘사무종사자’ 10.2%, ‘서비스종사자’ 9.2%, ‘판매종사자’ 2.1%,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0.4%, ‘단순노무종사자’는 3.2%, ‘자영업’은 15.9%, ‘가정주부’는 20.9%, ‘학생’은 0.5%, ‘무직’은 10.7%, ‘기타’는 8.4%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관리자’ 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3%, ‘사무종사자’ 11.8%, ‘서비스종사자’ 13.0%, ‘판매종사자’ 2.3%,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0.5%, ‘단순노무종사자’는 3.3%, ‘자영업’은 8.2%, ‘가정주부’는 3.4%, ‘학생’은 17.1%, ‘무직’은 18.4%, ‘기타’는 8.8%였다.

배우자 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자영업’, ‘가정주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각각 2.6%, 3.2%, 7.7%, 17.5% 더 높았으며,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학생’, ‘무직’, ‘기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각각 1.5%, 3.8%, 0.2%, 0.5%, 0.1%, 0.1%, 0.1%, 16.5%, 7.7%, 0.4% 더 높았다.

[표 4-3]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문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축산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3%	10.4%	10.2%	9.2%	2.1%	0.3%	1.4%
	배우자 없음	3.8%	7.3%	11.8%	13.0%	2.3%	0.7%	1.5%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2.6%	3.2%	-1.5%	-3.8%	-0.2%	-0.5%	-0.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영업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4%	3.2%	15.9%	20.9%	0.5%	10.7%	8.4%
	배우자 없음	0.5%	3.3%	8.2%	3.4%	17.1%	18.4%	8.8%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0.1%	-0.1%	7.7%	17.5%	-16.5%	-7.7%	-0.4%

(1) 근무 형태

응답자의 근무 형태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주 5일제’의 근무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 6일제’ 19.9%, ‘토요일 격주 휴무제’ 4.7%, ‘주 5일제’ 57.9%, ‘월 1회 휴무제’ 1.6%, ‘격일 근무제’ 3.5%, ‘기타’ 12.4%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 6일제’ 16.9%, ‘토요일 격주 근무제’ 4.4%, ‘주 5일제’ 59.6%, ‘월 1회 휴무제’ 0.4%, ‘격일 근무제’ 4.0%, ‘기타’ 14.6%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 6일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월 1회 휴무제’에서 각각 배우자가 없을 경우보다 3.0%, 0.3%, 1.2%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주 5일제’, ‘격일 근무제’, ‘기타’에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보다 각각 1.7%, 0.5%, 2.3%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4]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문3-1		주 6일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주 5일제	월 1회 휴무제	격일 근무제	기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9%	4.7%	57.9%	1.6%	3.5%	12.4%
	배우자 없음	16.9%	4.4%	59.6%	0.4%	4.0%	14.6%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3.0%	0.3%	-1.7%	1.2%	-0.5%	-2.3%

(2) 근무 유형

응답자의 근무 유형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상용직’은 81.3%,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은 15.3%, 1개월 미만의 ‘일용직’은 3.4%였고, ‘상용직’은 69.5%, ‘임시직’은 27.3%, ‘일용직’은 3.2%이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1.8% 더 높았으며, ‘임시직’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0% 더 높았다. ‘일용직’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0.2% 더 높았다.

[표 4-5]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문3-2		상용직 (1년 이상)	임시직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 (1개월 미만)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1.3%	15.3%	3.4%
	배우자 없음	69.5%	27.3%	3.2%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11.8%	-12.0%	0.2%

(3) 시간제, 전일제 여부

응답자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일제’는 72.0%, ‘시간제’는 17.6%, ‘기타’는 10.4%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전일제’가

64.7%, ‘시간제’가 27.3%, ‘기타’ 8.0%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일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7.2% 더 높았고, ‘시간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9.6% 더 높았으며, ‘기타’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2.4% 더 높았다.

[표 4-6]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문 3-3		전일제	시간제	기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2.0%	17.6%	10.4%
	배우자 없음	64.7%	27.3%	8.0%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7.2%	-9.6%	2.4%

4. 주요 소득원

응답자의 주요 소득원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주요 소득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53.8%,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32.8%,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2.1%,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2.1%, ‘정부의 보조금’ 1.2%,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3%, ‘친인척의 보조금’ 0.1%, ‘기타 4.9%’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69.8%,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8.6%,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1.8%,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2.5%, ‘정부의 보조금’ 6.3%,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2%, ‘친인척의 보조금’ 0.7%, ‘기타 9.9%’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24.2%, 0.3%, 2.1%, 0.1%만큼 더 높았다. 반면 ‘가구주의 근로소득’, ‘정부의 보조금’, ‘친인척의 보조금’, ‘기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각각 16.0%, 5.1%, 0.6%, 5.1%만큼 더 높았다.

[표 4-7]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문4		가구주의 근로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정부의 보조금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의 보조금	기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3.8%	32.8%	2.1%	4.7%	1.2%	0.3%	0.1%	4.9%
	배우자 없음	69.8%	8.6%	1.8%	2.5%	6.3%	0.2%	0.7%	9.9%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16.0%	24.2%	0.3%	2.1%	-5.1%	0.1%	-0.6%	-5.1%

5. 월 평균 가구소득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200~299만원’의 소득 구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99만원 이하’는 5.5%, ‘100~199만원’은 8.3%, ‘200~299만원’은 19.2%, ‘300~399만원’은 16.3%, ‘400~499만원’은 16.3%, ‘500~599만원’은 14.4%, ‘600~699만원’은 8.4%, ‘700만원 이상’은 11.5%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99만원 이하’는 15.3%, ‘100~199만원’은 12.6%, ‘200~299만원’은 23.8%, ‘300~399만원’은 13.5%, ‘400~499만원’은 11.3%, ‘500~599만원’은 8.2%, ‘600~699만원’은 5.3%, ‘700만원 이상’은 10.1%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에 구간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각각 9.8%, 4.3%, 4.6%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각각 2.9%, 5.1%, 6.2%, 3.0%, 1.5% 더 높았다.

[표 4-8]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문5		99만원 이하	100~ 199만원	200~ 299만원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 699만원	700만원 이상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	8.3%	19.2%	16.3%	16.3%	14.4%	8.4%	11.5%
	배우자 없음	15.3%	12.6%	23.8%	13.5%	11.3%	8.2%	5.3%	10.1%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9.8%	-4.3%	-4.6%	2.9%	5.1%	6.2%	3.0%	1.5%

6. 사회·경제적 위치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중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11.0%, ‘중하층’ 58.5%, ‘중상층’ 30.1%, ‘최상층’ 0.4%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하층’ 20.7%, ‘중하층’ 55.4%, ‘중상층’ 23.6%, ‘최상층’ 0.2%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9.7% 더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중하층’, ‘중상층’, ‘최상층’에서 각각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3.1%, 6.4%, 0.2%만큼 더 높았다.

[표 4-9]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6		최하층	중하층	중상층	최상층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0%	58.5%	30.1%	0.4%
	배우자 없음	20.7%	55.4%	23.6%	0.2%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9.7%	3.1%	6.4%	0.2%

7. 성향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성향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자신이 ‘중도진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진보’ 16.1%, ‘중도진보’ 44.6%, ‘중도보수’ 25.3%, ‘보수’ 14.0%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진보’ 17.8%, ‘중도진보’ 47.1%, ‘중도보수’ 25.3%, ‘보수’ 14.0%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신의 성향이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각각 1.7%, 2.5%, 0.5%만큼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 ‘보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4.6%만큼 높았다.

[표 4-10]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문7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1%	44.6%	25.3%	14.0%
	배우자 없음	17.8%	47.1%	25.8%	9.3%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1.7%	-2.5%	-0.5%	4.6%

8. 가족 구성원 수

응답자의 가족 구성원 수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평균값은 3.38명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평균값은 2.81명이었다.

[표 4-11]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문8		평균(명)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8명
	배우자 없음	2.81명

9. 가족 구성원

응답자의 가족 구성원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본인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91.9%, ‘부모(본인부모)’ 5.2%, ‘부모(배우자부모)’ 3.3%, ‘자녀(기혼)’ 10.0%, ‘자녀(미혼)’ 64.6%, ‘손자손녀’ 2.6%, ‘친인척’ 0.8%, ‘1인 거주’ 1.4%, ‘기타’ 0.8%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본인부모)’ 54.4%, ‘부모(배우자부모)’ 3.7%, ‘자녀(기혼)’ 2.7%, ‘자녀(미혼)’ 12.2%, ‘손자손녀’ 1.4%, ‘친인척’ 3.2%, ‘1인 거주’ 27.8%, ‘기타’ 21.4%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자녀(기혼)’, ‘자녀(미혼)’, ‘손자손녀’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각각 91.9%, 7.2%, 52.4%, 1.3% 만큼 더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부모(본인부모)’, ‘친인척’, ‘1인 거주’, ‘기타’와 같은 비중이 각각 49.2%, 0.4%, 2.4%, 26.4%, 20.6%만큼 더 높았다.

[표 4-12]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문9 (복수응답)		배우자	부모 (본인부모)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기혼)	자녀 (미혼)	손자 손녀	친인척	1인 거주	기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9%	5.2%	3.3%	10.0%	64.6%	2.6%	0.8%	1.4%	0.8%
	배우자 없음	0.0%	54.4%	3.7%	2.7%	12.2%	1.4%	3.2%	27.8%	21.4%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91.9%	-49.2%	-0.4%	7.2%	52.4%	1.3%	-2.4%	-26.4%	-20.6%

10. 주거형태

응답자의 주거형태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독주택’ 7.1%, ‘아파트’ 80.8%, ‘연립, 다세대주택’ 10.5%, ‘기타’ 2.4%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9.3%, ‘아파트’ 62.9%, ‘연립 다세대주택’ 20.0%, ‘기타’ 7.8%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17.1%만큼 더 많았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2.3%, 9.5%, 5.4%만큼 더 많았다.

[표 4-13]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문10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1%	80.0%	10.5%	2.4%
	배우자 없음	9.3%	62.9%	20.0%	7.8%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2.3%	17.1%	-9.5%	-5.4%

11. 점유형태

응답자의 점유형태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모두 ‘자기 집’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기 집’ 70.9%, ‘전세’ 20.0%, ‘보증금 있는 월세’ 7.1%,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5%, ‘무상’ 1.6%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기 집’ 52.4%, ‘전세’ 22.3%, ‘보증금 있는 월세’ 19.0%, ‘보증금

없는 월세' 2.7%, '무상' 3.6%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18.5% 더 높았다. 반면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각각 2.3%, 12.0%, 2.2%, 2.1% 더 높았다.

[표 4-14]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문11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0.9%	20.0%	7.1%	0.5%	1.6%
	배우자 없음	52.4%	22.3%	19.0%	2.7%	3.6%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18.5%	-2.3%	-12.0%	-2.2%	-2.1%

12. 출근 및 통학 지역

응답자의 출근 및 통학 지역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고양시 내'로 출근 하거나 통학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고양시 내' 47.7%, '서울 강남' 3.9%, '서울 강북' 5.9%, '경기 북부' 3.3%, '경기 남부' 1.9%, '그 외 지역' 2.6%, '출퇴근(통근/통학)안함' 34.8%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고양시 내' 50.4%, '서울 강남' 5.7%, '서울 강북' 8.6%, '경기 북부' 3.6%, '경기 남부' 1.7%, '그 외 지역' 3.9%, '출퇴근(통근/통학)안함' 26.1%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고양시 내',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기 북부', '그 외 지역'으로 출근 및 통학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2.8%, 1.8%, 2.7%, 0.3%, 1.3% 만큼 많았다. 반면에 '경기 남부'로 출근 및 통학하는 경우나 출근 및 통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0.2%, 8.7%만큼 많았다.

[표 4-15]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문12		고양시 내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그 외 지역	출퇴근(통근/통학) 안함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7.7%	3.9%	5.9%	3.3%	1.9%	2.6%	34.8%
	배우자 없음	50.4%	5.7%	8.6%	3.6%	1.7%	3.9%	26.1%
차이(남-여)		-2.8%	-1.8%	-2.7%	-0.3%	0.2%	-1.3%	8.7%

13. 출근 및 통학 수단

응답자의 출근 및 통학 수단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 승용차’, 배우자가 없는 경우 ‘버스’를 주된 출근 및 통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 승용차’ 39.5%, ‘버스’ 10.4%, ‘택시’ 0.1%, ‘전철 및 지하철’ 7.1%, ‘개인 모빌리티’ 1.0%, ‘공유 모빌리티’ 0.1%, ‘도보’ 7.7%, ‘기타’ 34.2%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개인 승용차’가 19.3%, ‘버스’가 27.6%, ‘택시’가 0.1%, ‘전철 및 지하철’이 14.1%, ‘KTX’가 0.5%, ‘개인 모빌리티’가 1.5%, ‘도보’ 11.2%, ‘기타’ 25.8%였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승용차’, ‘공유 모빌리티’, ‘기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20.2%, 0.1%, 8.4%만큼 더 높았고, ‘버스’, ‘전철 및 지하철’, ‘KTX’, ‘개인 모빌리티’, ‘도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17.3%, 7.0%, 0.5%, 0.5%, 3.5%만큼 더 높았다.

[표 4-16]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문13		개인 승용차	버스	택시	전철 및 지하철	KTX	개인 모빌리티	공유 모빌리티	도보	기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9.5%	10.4%	0.1%	7.1%	0.0%	1.0%	0.1%	7.7%	34.2%
	배우자 없음	19.3%	27.6%	0.1%	14.1%	0.5%	1.5%	0.0%	11.2%	25.8%
차이 (배우자 있음-없음)		20.2%	-17.3%	0.0%	-7.0%	-0.5%	-0.5%	0.1%	-3.5%	8.4%

14. 거주 기간 및 지속 여부

(1) 거주 기간

응답자의 고양시 거주 기간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고양시에 거주한 평균 기간은 17.6년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5.4년으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2.2년이다.

[표 4-17]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문14		평균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6년
	배우자 없음	15.4년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2.2년

(2) 지속 의향

응답자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을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고양시에 거주할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 ‘보통이다’ 18.4%, ‘어느 정도 그렇다’ 34.6%, ‘매우 그렇다’ 39.9%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6.2%, ‘보통이다’ 20.8%, ‘어느 정도 그렇다’ 35.4%, ‘매우 그렇다’ 35.9%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없었으며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에게서 0.8%만큼 더 많은 응답을 얻었다. ‘보통이다’의 경우도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차이는 2.3%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 또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더 많이 선택하였고 그 차이는 0.8%이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차이는 4.0%이다.

[표 4-18]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문 14-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	5.4%	18.4%	34.6%	39.9%
	배우자 없음	1.7%	6.2%	20.8%	35.4%	35.9%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0.0%	-0.8%	-2.3%	-0.8%	4.0%

15. 애착도

응답자의 고양시에 대한 애착도를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1%, ‘애착도 없는 편임’ 3.4%, ‘보통’ 31.3%, ‘애착도 조금 있음’ 25.3%, ‘애착도 매우 많음’ 38.9%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2%, ‘애착도 없는 편임’ 4.1%, ‘보통’ 33.0%, ‘애착도 조금 있음’ 30.7%, ‘애착도 매우 많음’ 31.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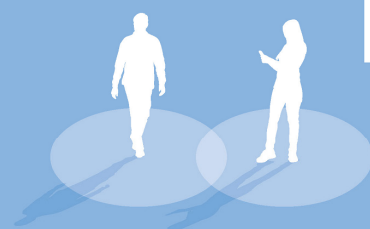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애착도 매우 많음’의 비중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통’의 비중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애착도 전혀 없음’, ‘애착도 없는 편임’, ‘보통’, ‘애착도 조금 있음’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0.1%, 0.7%, 1.7%, 5.3% 더 높았고, ‘애착도 매우 많음’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7.8%만큼 더 높았다.

[표 4-19]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문15		애착도 전혀 없음	애착도 없는 편임	보통	애착도 조금 있음	애착도 매우 많음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	3.4%	31.3%	25.3%	38.9%
	배우자 없음	1.2%	4.1%	33.0%	30.7%	31.0%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0.1%	-0.7%	-1.7%	-5.3%	7.8%

●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5 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자녀 유·무별 분석

제1절 자녀 유·무별 분석

1. 학력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응답자의 학력 비중이 ‘대졸’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중졸 이하는 6.2%, 고졸은 34.6%, 대졸은 52.0% 대학원 이상은 7.2%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중졸 이하는 4.6%, 고졸은 30.5%, 대졸은 59.8% 대학원 이상은 5.1%였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응답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 ‘고졸’, ‘대학원 이상’에서 1.6%, 4.1%, 2.1%만큼 더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대졸’인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7.8%만큼 더 높았다.

[표 5-1]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	34.6%	52.0%	7.2%
	자녀 없음	4.6%	30.5%	59.8%	5.1%
차이(자녀 있음-없음)		1.6%	4.1%	-7.8%	2.1%

2. 종교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개신교’ 28.9%, ‘불교’ 16.1%, ‘천주교’ 15.0%, ‘기타’ 2.5%, ‘없다(무교)’ 37.6%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개신교’ 22.2%, ‘불교’ 8.0%, ‘천주교’ 10.5%, ‘기타’ 1.5%, ‘없다(무교)’ 57.7%였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각각의 차이는 6.6%, 8.0%, 4.4%, 1.0%이다. 반면에 무교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보다 20.1% 더 높았다.

[표 5-2]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문2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다(무교)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8.9%	16.1%	15.0%	2.5%	37.6%
	자녀 없음	22.2%	8.0%	10.5%	1.5%	57.7%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6.6%	8.0%	4.4%	1.0%	-20.1%

3. 직업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주부’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학생’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관리자’ 6.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9%, ‘사무종사자’ 9.0%, ‘서비스 종사자’ 9.6%, ‘판매종사자’ 1.6%,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 ‘단순노무종사자’ 3.1%, ‘자영업’ 15.5%, ‘가정주부’ 20.1%, ‘학생’ 0.9%, ‘무직’ 13.1%, ‘기타’ 8.6%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관리자’ 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9%, ‘사무종사자’ 14.8%, ‘서비스 종사자’ 12.7%, ‘판매종사자’ 3.4%,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6%, ‘단순노무종사자’ 3.4%, ‘자영업’ 7.9%, ‘가정주부’ 2.3%, ‘학생’ 19.0%, ‘무직’ 14.5%, ‘기타’ 8.6%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자영업’, ‘가정주부’의 비중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2.7%, 2.1%, 0.2%, 7.7%, 17.9%만큼 더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학생’, ‘무직’의 비중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각각 5.8%, 3.0%, 1.8%, 0.2%, 0.3%, 18.1%, 1.4%만큼 더 높았다. 반면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기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5-3]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문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축산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	9.9%	9.0%	9.6%	1.6%	0.5%	1.4%
	자녀 없음	3.5%	7.9%	14.8%	12.7%	3.4%	0.3%	1.4%
차이(자녀 있음-없음)		2.7%	2.1%	-5.8%	-3.0%	-1.8%	0.2%	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영업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자녀 유무	자녀 있음	0.4%	3.1%	15.5%	20.1%	0.9%	13.1%	8.6%
	자녀 없음	0.6%	3.4%	7.9%	2.3%	19.0%	14.5%	8.6%
차이(자녀 있음-없음)		-0.2%	-0.3%	7.7%	17.9%	-18.1%	-1.4%	0.0%

(1) 근무 형태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주 5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주 6일제’ 20.4%, ‘토요일 격주 휴무제’ 5.1%, ‘주 5일제’ 56.5%, ‘월 1회 휴무제’ 1.7%, ‘격일 근무제’ 3.8%, ‘기타’ 12.5%였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주 6일제’ 15.6%, ‘토요일 격주 휴무제’ 3.4%, ‘주 5일제’ 62.7%, ‘월 1회 휴무제’ 0.2%, ‘격일 근무제’ 3.4%, ‘기타’ 14.6%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주 6일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월 1회 휴무제’, ‘격일 근무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각각의 차이는 4.9%, 1.7%, 1.4%, 0.3%이다. ‘주 5일제’, ‘기타’는 자녀가 없는 경우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각각 6.2%, 2.2%이다.

[표 5-4]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문3-1		주 6일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주 5일제	월 1회 휴무제	격일 근무제	기타
자녀 유무	자녀 있음	20.4%	5.1%	56.5%	1.7%	3.8%	12.5%
	자녀 없음	15.6%	3.4%	62.7%	0.2%	3.4%	14.6%
차이(자녀 있음-없음)		4.9%	1.7%	-6.2%	1.4%	0.3%	-2.2%

(2) 근무 유형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상용직’의 비중이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상용직’은 80.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은 15.5%, 1개월 미만의 ‘일용직’은 3.9%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상용직’은 70.1%, ‘임시직’은 27.6%, ‘일용직’은 2.4%였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상용직’, ‘일용직’의 비중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각각 10.5%, 1.5%만큼 높았다. 반면 ‘임시직’의 비중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12.0%만큼 더 높았다.

[표 5-5]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문3-2		상용직 (1년 이상)	임시직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 (1개월 미만)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0.6%	15.5%	3.9%
	자녀 없음	70.1%	27.6%	2.4%
차이(자녀 있음-없음)		10.5%	-12.0%	1.5%

(3) 시간제, 전일제 여부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는 모두 ‘전일제’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전일제’ 71.2%, ‘시간제’ 18.0%, ‘기타’ 10.8%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전일제’ 65.7%, ‘시간제’ 27.3%, ‘기타’ 7.0%였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일제’와 ‘기타’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각각 5.5%, 3.8%만큼 높았다. ‘시간제’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9.2% 더 높았다.

[표 5-6]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

문 3-3		전일제	시간제	기타
자녀 유무	자녀 있음	71.2%	18.0%	10.8%
	자녀 없음	65.7%	27.3%	7.0%
차이(자녀 있음-없음)		5.5%	-9.2%	3.8%

4. 주요 소득원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주요 소득원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54.1%,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29.1%,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2.4%,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5.2%, ‘정부의 보조금’ 2.8%,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3%, ‘친인척의 보조금’ 0.3%, ‘기타’ 5.8%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71.9%,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12.8%, ‘재산소득’ 1.3%,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1.0%, ‘정부의 보조금’ 3.7%,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3%, ‘친인척의 보조금’ 0.4%, ‘기타’ 8.7%였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이 각각 16.3%, 1.1%, 4.2%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 비해 ‘가구주의 근로소득’, ‘정부의 보조금’, ‘친인척의 보조금’, ‘기타’가 각각 17.8%, 0.9%, 0.1%, 2.9% 더 많았다.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5-7]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문4		가구주의 근로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정부의 보조금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의 보조금	기타
자녀 유무	자녀 있음	54.1%	29.1%	2.4%	5.2%	2.8%	0.3%	0.3%	5.8%
	자녀 없음	71.9%	12.8%	1.3%	1.0%	3.7%	0.3%	0.4%	8.7%
차이(자녀 있음-없음)		-17.8%	16.3%	1.1%	4.2%	-0.9%	0.0%	-0.1%	-2.9%

5. 월 평균 가구소득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월 평균 가구소득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200~299만원’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99만원 이하’ 8.8%, ‘100~199만원’ 9.6%, ‘200~299만원’ 18.9%, ‘300~399만원’ 15.5%, ‘400~499만원’ 15.3%, ‘500~599만원’ 13.2%, ‘600~699만원’ 7.6%, ‘700만원 이상’은 11.1%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99만원 이하’ 9.6%, ‘100~199만원’ 10.4%, ‘200~299만원’ 25.0%, ‘300~399만원’ 14.9%, ‘400~499만원’ 12.8%, ‘500~599만원’ 10.0%, ‘600~699만원’ 6.5%, ‘700만원 이상’은 10.8%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없는 경우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각각 0.8%, 0.8%, 6.1% 더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각각 0.6%, 2.5%, 3.2%, 1.2%, 0.3% 더 많았다.

[표 5-8]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문5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8%	9.6%	18.9%	15.5%	15.3%	13.2%	7.6%	11.1%
	자녀 없음	9.6%	10.4%	25.0%	14.9%	12.8%	10.0%	6.5%	10.8%
차이(자녀 있음-없음)		-0.8%	-0.8%	-6.1%	0.6%	2.5%	3.2%	1.2%	0.3%

6. 사회·경제적 위치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사회·경제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신이 14.4%가 ‘최하층’이라고 인식하였으며, 56.6%가 ‘중하층’, 28.6%가 ‘중상층’, 0.4%가 ‘최상층’이라고 인식하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14.8%가 ‘최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59.2%가 ‘중하층’, 25.9%가 ‘중상층’, 0.1%가 ‘최상층’이라고 인식하였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신을 ‘중상층’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중상층’은 2.7%, ‘최상층’은 0.3% 더 많았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최하층’,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0.4%, 2.7% 높았다.

[표 5-9]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문6		최하층	중하층	중상층	최상층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4.4%	56.6%	28.6%	0.4%
	자녀 없음	14.8%	59.2%	25.9%	0.1%
차이(자녀 있음-없음)		-0.4%	-2.7%	2.7%	0.3%

7. 성향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은 자녀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중도진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진보’ 16.4%, ‘중도진보’ 43.9%, ‘중도보수’ 25.5%, ‘보수’ 14.3%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진보’ 17.5%, ‘중도진보’ 49.1%, ‘중도보수’ 25.5%, ‘보수’ 7.9%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없는 경우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의 비중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각각 1.1%, 5.3%, 0.1%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보수’가 6.4% 더 많았다.

[표 5-10]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문7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6.4%	43.9%	25.5%	14.3%
	자녀 없음	17.5%	49.1%	25.5%	7.9%
차이(자녀 있음-없음)		-1.1%	-5.3%	-0.1%	6.4%

8. 가족 구성원 수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가족 구성원 수 평균은 3.3명, 없는 경우는 2.89명으로 그 차이는 0.41명이다.

[표 5-11]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문8		평균(명)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30명
	자녀 없음	2.89명
차이(자녀 있음-없음)		0.41명

9. 가족 구성원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본인부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80%, ‘부모(본인부모)’ 6.3%, ‘부모(배우자부모)’ 3.2%, ‘자녀(기혼)’ 10.5%, ‘자녀(미혼)’ 65.2%, ‘손자손녀’ 3.2%, ‘친인척’ 0.7%, ‘1인 거주’ 6.0%, ‘기타’ 1.3%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13.0%, ‘부모(본인부모)’ 59.3%, ‘부모(배우자부모)’ 4.1%, ‘친인척’ 3.9%, ‘1인 거주’ 21.8%, ‘기타’ 26.0%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기혼)’, ‘자녀(미혼)’, ‘손자손녀’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67.0%, 10.5%, 65.2%, 3.2% 더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본인부모)’,

‘부모(배우자부모)’, ‘친인척’, ‘1인 거주’, ‘기타’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각각 53.1%, 1%, 3.2%, 15.8%, 24.7% 더 높았다.

[표 5-12]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문9(복수응답)		배우자	부모 (본인부모)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기혼)	자녀 (미혼)	손자 손녀	친인척	1인 거주	기타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0.0%	6.3%	3.2%	10.5%	65.2%	3.2%	0.7%	6.0%	1.3%
	자녀 없음	13.0%	59.3%	4.1%	0.0%	0.0%	0.0%	3.9%	21.8%	26.0%
차이(자녀 있음-없음)		67.0%	-53.1%	-1.0%	10.5%	65.2%	3.2%	-3.2%	-15.8%	-24.7%

10. 주거형태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는 모두 ‘아파트’의 비중이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단독주택’ 8.3%, ‘아파트’ 76.3%, ‘연립, 다세대주택’ 12.0%, ‘기타’ 3.4%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7.0%, ‘아파트’ 68.4%, ‘연립, 다세대주택’ 18.1%, ‘기타’ 6.5%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단독주택’, ‘아파트’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1.2%, 8.0%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6.1%, 3.1% 높았다.

[표 5-13]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문10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자녀 유무	자녀 있음	8.3%	76.3%	12.0%	3.4%
	자녀 없음	7.0%	68.4%	18.1%	6.5%
차이(자녀 있음-없음)		1.2%	8.0%	-6.1%	-3.1%

11. 점유형태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점유 형태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자기 집’의 비중이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기 집’ 69.4%, ‘전세’ 18.5%, ‘보증금 있는 월세’ 9.2%,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1.1%, ‘무상’ 1.8%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자기 집’ 52.7%, ‘전세’ 26.0%, ‘보증금 있는 월세’ 16.2%,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1.5%, ‘무상’ 3.5%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기 집’의 비중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16.6% 더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의 비중이 각각 7.5%, 6.9%, 0.4%, 1.7% 더 높았다.

[표 5-14]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문11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9.4%	18.5%	9.2%	1.1%	1.8%
	자녀 없음	52.7%	26.0%	16.2%	1.5%	3.5%
차이(자녀 있음-없음)		16.6%	-7.5%	-6.9%	-0.4%	-1.7%

12. 출근 및 통학 지역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고양시 내’로 출근 및 통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고양시 내’ 46.9%, ‘서울 강남’ 3.5%, ‘서울 강북’ 5.6%, ‘경기 북부’ 3.2%, ‘경기 남부’ 1.7%, ‘그 외 지역’ 2.5%, ‘출퇴근(통근/통학)안함’ 36.6%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고양시 내’ 52.6%, ‘서울 강남’ 6.9%, ‘서울 강북’ 9.7%, ‘경기 북부’ 3.9%, ‘경기 남부’ 2.0%, ‘그 외 지역’ 4.4%, ‘출퇴근(통근/통학)안함’ 20.5%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고양시 내’ 5.7%, ‘서울 강남’ 3.4%, ‘서울 강북’ 4.1%, ‘경기 북부’ 0.8%, ‘경기 남부’ 0.2%, ‘그 외 지역’ 1.9% 더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통근/통학)안함’은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16.1% 더 많았다.

[표 5-15]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문12		고양시 내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그 외 지역	출퇴근 (통근/통학) 안함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6.9%	3.5%	5.6%	3.2%	1.7%	2.5%	36.6%
	자녀 없음	52.6%	6.9%	9.7%	3.9%	2.0%	4.4%	20.5%
차이(자녀 있음-없음)		-5.7%	-3.4%	-4.1%	-0.8%	-0.2%	-1.9%	16.1%

13. 출근 및 통학 수단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수단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 승용차’, 자녀가 없는 경우 ‘버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 승용차’ 36.8%, ‘버스’ 10.6%, ‘택시’ 0.1%, ‘전철 및 지하철’ 6.7%, ‘개인 모빌리티’ 0.9%, ‘공유 모빌리티’ 0.1%, ‘도보’ 8.3%, ‘기타’ 36.5%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개인 승용차’ 22.1%, ‘버스’ 29.8%, ‘택시’ 0.1%, ‘전철 및 지하철’ 16.0%, ‘KTX’ 0.6%, ‘개인 모빌리티’ 1.7%, ‘도보’ 10.3%, ‘기타’ 19.4%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 승용차’, ‘공유 모빌리티’, ‘기타’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14.7%, 0.1%, 17.1% 더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버스’, ‘전철 및 지하철’, ‘KTX’, ‘개인 모빌리티’, ‘도보’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각각 19.2%, 9.3%, 0.6%, 0.8%, 1.9% 더 높았다. 반면 ‘택시’의 경우 차이가 없었다.

[표 5-16]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문13		개인 승용차	버스	택시	전철 및 지하철	KTX	개인 모빌리티	공유 모빌리티	도보	기타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6.8%	10.6%	0.1%	6.7%	0.0%	0.9%	0.1%	8.3%	36.5%
	자녀 없음	22.1%	29.8%	0.1%	16.0%	0.6%	1.7%	0.0%	10.3%	19.4%
차이(배우자 있음-없음)		14.7%	-19.2%	0.0%	-9.3%	-0.6%	-0.8%	0.1%	-1.9%	17.1%

14. 거주 기간 및 지속 여부

(1) 거주 기간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고양시 거주 기간의 평균은 18.1년, 자녀가 없는 경우 14.0년이었으며 그 차이는 4.1년이다.

[표 5-17]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문14		평균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8.1년
	자녀 없음	14.0년
차이(자녀 있음-없음)		4.1년

(2) 지속 의향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매우 그렇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어느 정도 그렇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 ‘보통이다’ 16.9%, ‘어느 정도 그렇다’ 33.7%, ‘매우 그렇다’ 42.5%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6.6%, ‘보통이다’는 24.5%, ‘어느 정도 그렇다’는 37.6%, ‘매우 그렇다’는 29.4%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각각 0.2%, 1.4%, 7.6%, 3.9% 더 높았다.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매우 그렇다’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13.1% 높았다.

[표 5-18]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문 14-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7%	5.2%	16.9%	33.7%	42.5%
	자녀 없음	1.8%	6.6%	24.5%	37.6%	29.4%
차이(자녀 있음-없음)		-0.2%	-1.4%	-7.6%	-3.9%	13.1%

15. 애착도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애착도 매우 많음’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보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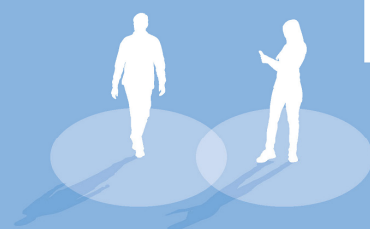
자녀가 있는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2%, ‘애착도 없는 편임’ 3.4%, ‘보통’ 30.3%, ‘애착도 조금 있음’ 24.6%, ‘애착도 매우 많음’ 40.4%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0%, ‘애착도 없는 편임’ 4.2%, ‘보통’ 35.3%, ‘애착도 조금 있음’ 33.2%, ‘애착도 매우 많음’ 26.3%였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과 ‘애착도 매우 많음’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각각 0.2%, 14.1% 높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애착도 없는 편임’, ‘보통’, ‘애착도 조금 있음’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각각 0.8%, 5.0%, 8.6% 높았다.

[표 5-19] 자녀 유·무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문15		애착도 전혀 없음	애착도 없는 편임	보통	애착도 조금 있음	애착도 매우 많음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2%	3.4%	30.3%	24.6%	40.4%
	자녀 없음	1.0%	4.2%	35.3%	33.2%	26.3%
차이(자녀 있음-없음)		0.2%	-0.8%	-5.0%	-8.6%	14.1%

●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6 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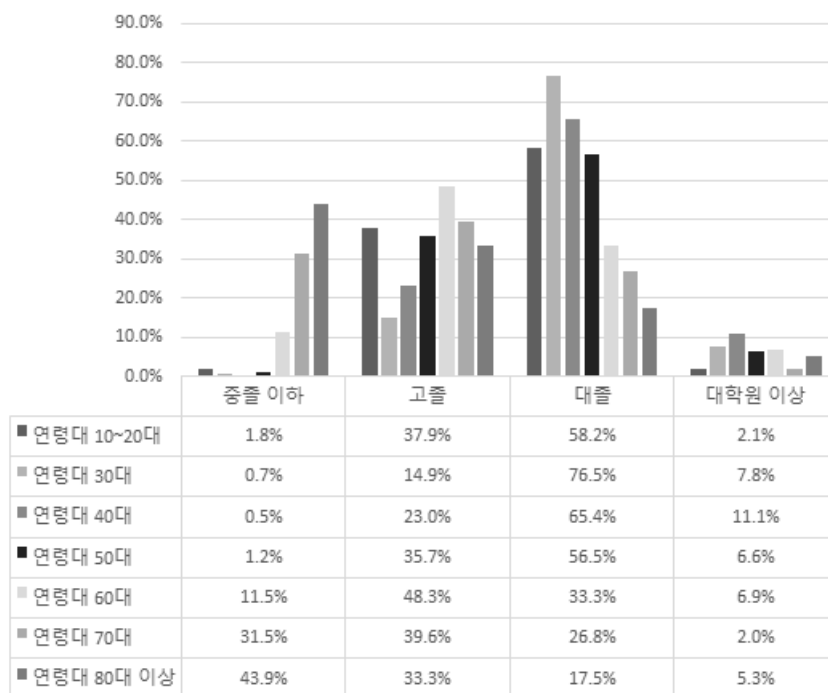
제1절 연령별 분석

1. 학력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은 다음과 같다.

10대~2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1.8%, ‘고졸’ 37.9%, ‘대졸’ 58.2%, ‘대학원 이상’ 2.1%였고 ‘대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0.7%, ‘고졸’ 14.9%, ‘대졸’ 76.5%, ‘대학원 이상’ 7.8%였고 ‘대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0.5%, ‘고졸’ 23.0%, ‘대졸’ 65.4%, ‘대학원 이상’ 11.1%였고 ‘대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1.2%, ‘고졸’ 35.7%, ‘대졸’ 56.5%, ‘대학원 이상’ 11.1%였고 ‘대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6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11.5%, ‘고졸’ 48.3%, ‘대졸’ 33.3%, ‘대학원 이상’ 6.9%였고 ‘고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31.5%, ‘고졸’ 39.6%, ‘대졸’ 26.8%, ‘대학원 이상’ 2.0%였고 ‘중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중졸 이하’가 43.9%, ‘고졸’ 33.3%, ‘대졸’ 17.5%, ‘대학원 이상’ 5.3%였고 ‘중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6-1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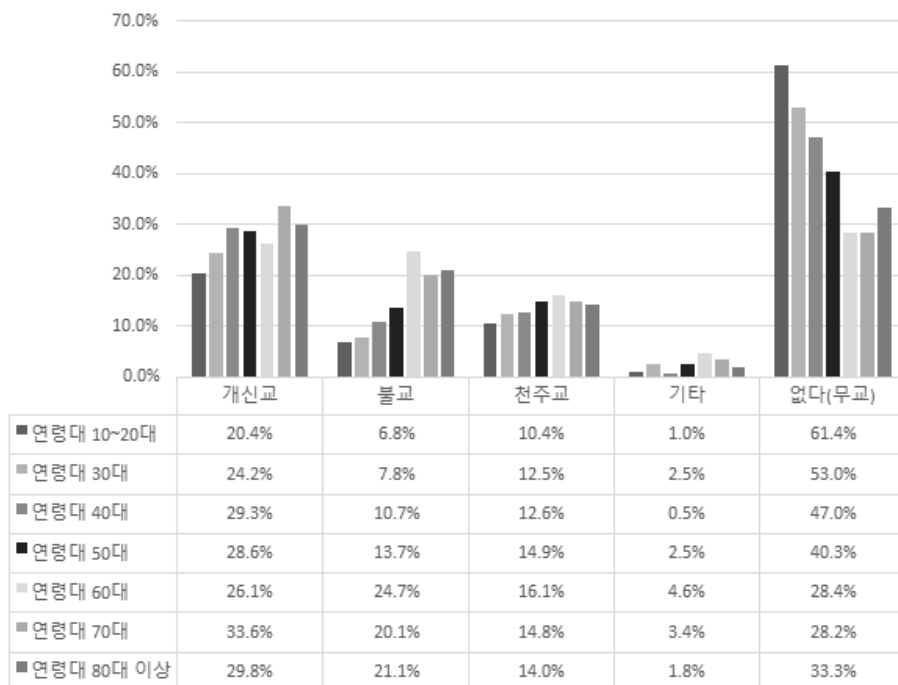
7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31.5%, ‘고졸’이 39.6%, ‘대졸’이 26.8%, ‘대학원 이상’ 2.0%였고 ‘고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중졸 이하’가 43.9%, ‘고졸’ 33.3%, ‘대졸’ 17.5%, ‘대학원 이상’ 5.3%였고 ‘중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0대부터 50대까지 ‘대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60대부터 70대까지 ‘고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의 경우 ‘중졸 이하’가 가장 높았다.

2. 종교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는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세부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대~20대의 경우 ‘개신교’ 20.4%, ‘불교’ 6.8%, ‘천주교’ 10.4%, ‘기타’ 1.0%, ‘없다(무교)’ 61.4%였고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개신교’ 24.2%, ‘불교’ 7.8%, ‘천주교’ 12.5%, ‘기타’ 2.5%, ‘없다(무교)’ 53.0%로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개신교’ 29.3%, ‘불교’ 10.7%, ‘천주교’ 12.6%, ‘기타’ 0.5%, ‘없다(무교)’ 47.0%였고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경우 ‘개신교’ 28.6%, ‘불교’ 13.7%, ‘천주교’ 14.9%, ‘기타’ 2.5%, ‘없다(무교)’ 40.3%였고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의 경우 ‘개신교’ 26.1%, ‘불교’ 24.7%, ‘천주교’ 16.1%, ‘기타’ 4.6%, ‘없다(무교)’ 28.4%였으며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대의 경우 ‘개신교’ 33.6%, ‘불교’ 20.1%, ‘천주교’ 14.8%, ‘기타’ 3.4%, ‘없다(무교)’ 28.2%였고 ‘개신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개신교’ 29.8%, ‘불교’ 21.1%, ‘천주교’ 14.0%, ‘기타’ 1.8%, ‘없다(무교)’ 33.3%였고 종교가 없는 무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2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3. 직업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은 10~20대의 경우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30대의 경우 ‘사무종사자’, 40대의 경우 ‘가정주부’, 50대의 경우는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60~80대에서는 ‘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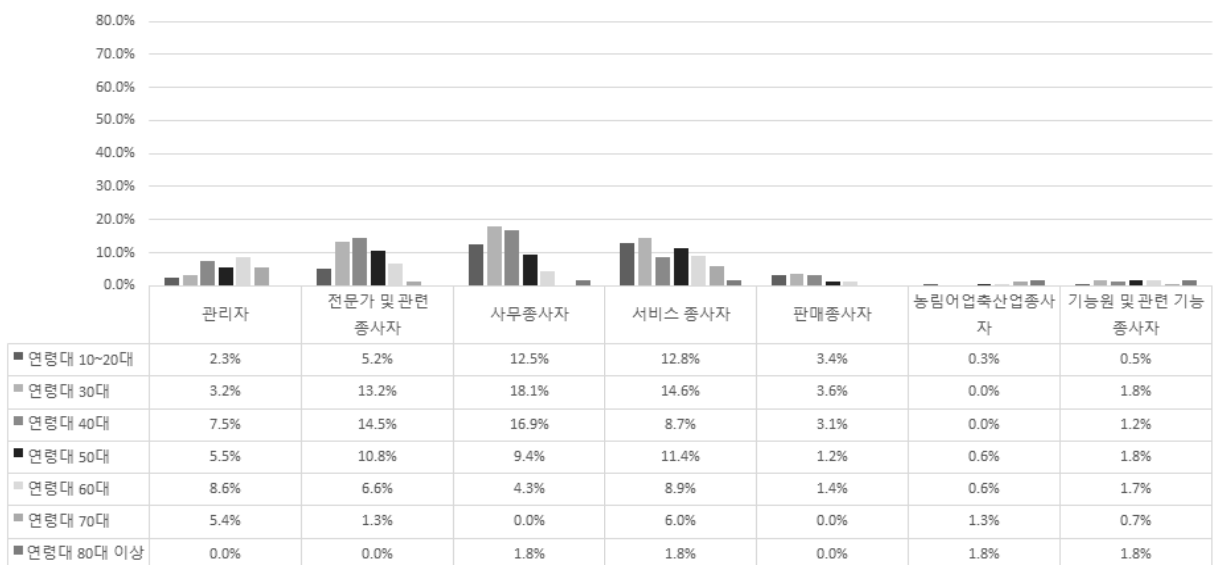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관리자’ 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 ‘사무종사자’ 12.5%, ‘서비스 종사자’ 12.8%, ‘판매 종사자’ 3.4%,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3%, ‘단순노무종사자’ 1.8%, ‘자영업’ 2.3%, ‘가정주부’ 1.3%, ‘학생’ 36.0%, ‘무직’ 12.3%, ‘기타’ 8.9%였고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관리자’ 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2%, ‘사무종사자’ 18.1%, ‘서비스 종사자’ 14.6%, ‘판매 종사자’ 3.6%,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 ‘단순노무종사자’ 2.8%, ‘자영업’ 9.6%, ‘가정주부’ 14.2%, ‘학생’ 1.1%, ‘무직’ 4.3%, ‘기타’ 12.5%였고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관리자’ 7.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5%, ‘사무종사자’ 16.9%, ‘서비스 종사자’ 8.7%, ‘판매 종사자’ 3.1%,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 ‘단순노무종사자’ 2.2%, ‘자영업’ 14.5%, ‘가정주부’ 21.3%, ‘학생’ 0%, ‘무직’ 3.1%, ‘기타’ 5.6%였고 ‘가정주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경우 ‘관리자’ 5.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8%, ‘사무종사자’ 9.4%, ‘서비스 종사자’ 11.4%, ‘판매 종사자’ 1.2%,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2%, ‘단순노무종사자’ 4.5%, ‘자영업’ 19.2%, ‘가정주부’ 17.2%, ‘학생’ 1.2%, ‘무직’ 6.6%, ‘기타’ 10.3%였고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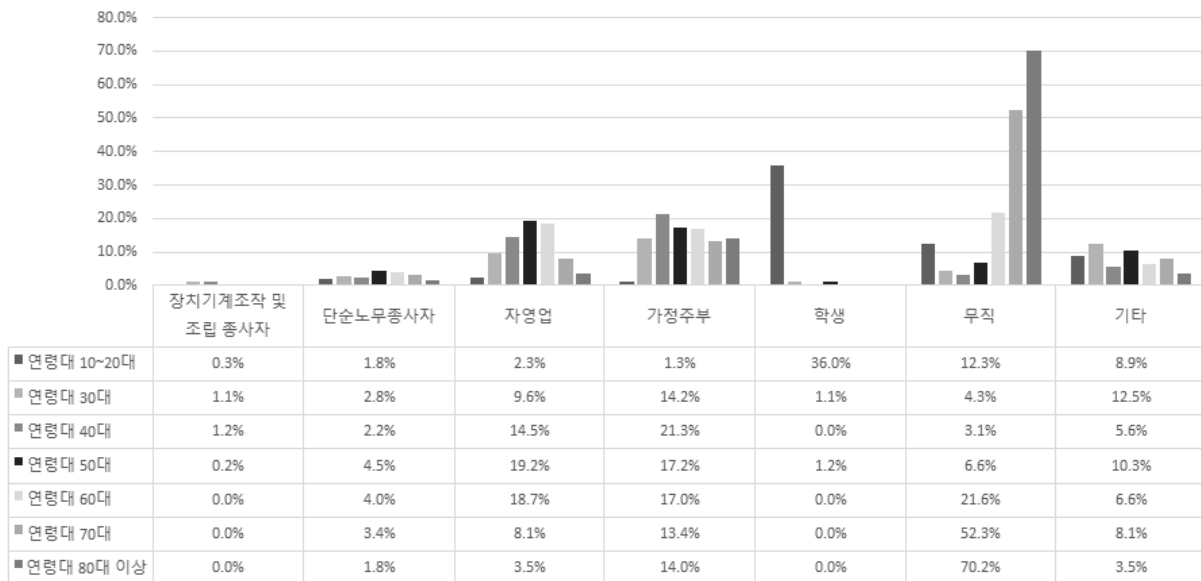
그림 6-3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60대의 경우 ‘관리자’ 8.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6%, ‘사무종사자’ 4.3%, ‘서비스 종사자’ 8.9%, ‘판매 종사자’ 1.4%,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 ‘단순노무종사자’ 4.0%, ‘자영업’ 18.7%, ‘가정주부’ 17.0%, ‘학생’ 0%, ‘무직’ 21.6%, ‘기타’ 6.6%였고 ‘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대의 경우 ‘관리자’ 5.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사무종사자’ 0.0%, ‘서비스 종사자’ 6.0%, ‘판매 종사자’ 0.0%,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 ‘단순노무종사자’ 3.4%, ‘자영업’ 8.1%, ‘가정주부’ 13.4%, ‘학생’ 0%, ‘무직’ 52.3%, ‘기타’ 8.1%였고 ‘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관리자’ 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 ‘사무종사자’ 1.8%, ‘서비스 종사자’ 1.8%, ‘판매 종사자’ 0%,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단순노무종사자’ 1.8%, ‘자영업’ 3.5%, ‘가정주부’ 14.0%, ‘학생’ 0%, ‘무직’ 70.2%, ‘기타’ 3.5%였고 ‘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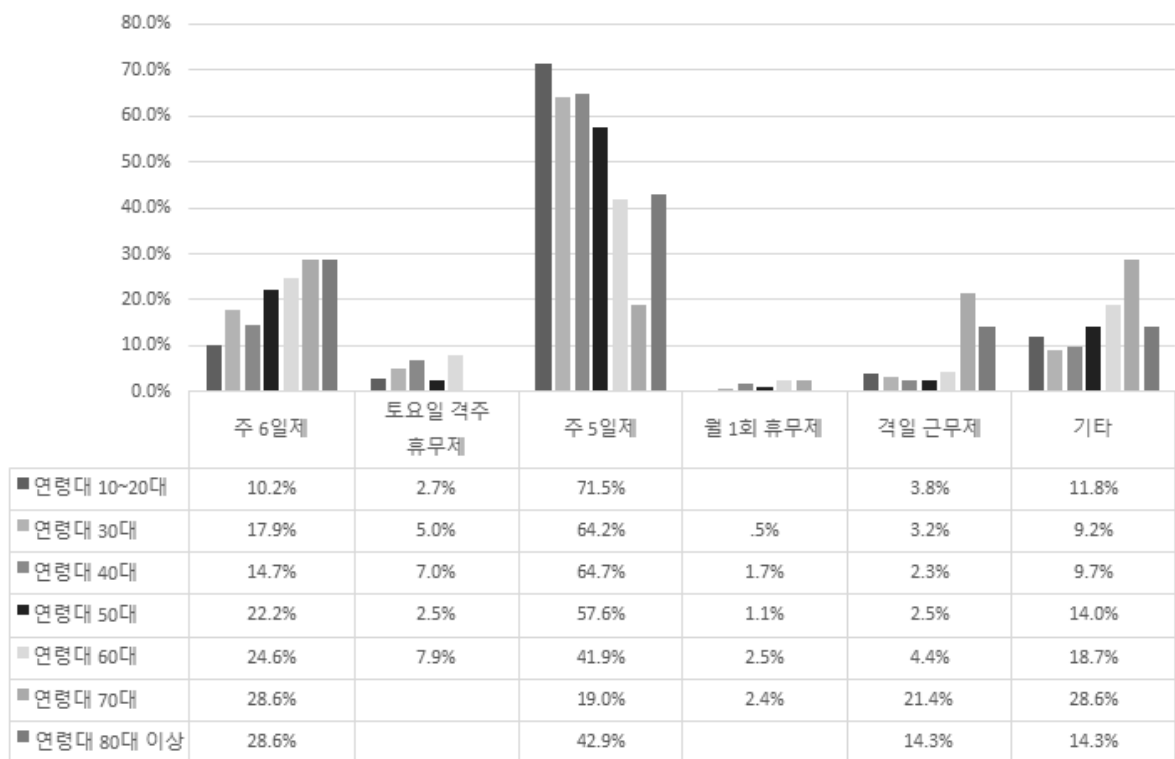
(1) 근무 형태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10~60, 80대 이상의 경우 ‘주 5일제’의 근무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대의 경우 ‘주 6일제’, ‘기타’가 가장 높았다.

10~20대의 경우 ‘주 6일제’ 10.2%, ‘토요일 격주 휴무제’ 2.7%, ‘주 5일제’ 71.5%, ‘월 1회 휴무’ 0%, ‘격일 근무제’ 3.8%, ‘기타 11.8%’였고 ‘주 5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주 6일제’ 17.9%, ‘토요일 격주 휴무제’ 5.0%, ‘주 5일제’ 64.2%, ‘월 1회 휴무’ 0.5%, ‘격일 근무제’ 3.2%, ‘기타 9.2%’였고 ‘주 5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주 6일제’ 14.7%, ‘토요일 격주 휴무제’ 7.0%, ‘주 5일제’ 64.7%, ‘월 1회 휴무’ 1.7%, ‘격일 근무제’ 2.3%, ‘기타 9.7%’였고 ‘주 5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경우 ‘주 6일제’ 22.2%, ‘토요일 격주 휴

무제' 2.5%, '주 5일제' 57.6%, '월 1회 휴무' 1.1%, '격일 근무제' 2.5%, '기타 14.0%'였고 '주 5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의 경우 '주 6일제' 24.6%, '토요일 격주 휴무제' 7.9%, '주 5일제' 41.9%, '월 1회 휴무' 2.5%, '격일 근무제' 4.4%, '기타 18.7%'였고 '주 5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대의 경우 '주 6일제' 28.6%, '토요일 격주 휴무제' 0%, '주 5일제' 19.0%, '월 1회 휴무' 2.4%, '격일 근무제' 21.4%, '기타 28.6%'였고 '주 6일제'와 '기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주 6일제' 28.6%, '토요일 격주 휴무제' 0%, '주 5일제' 42.9%, '월 1회 휴무' 0%, '격일 근무제' 14.3%, '기타 14.3%'였고 '주 5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4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2) 근무 유형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20대의 경우 '상용직(1년 이상)' 61.2%, '임시직(1개월 이상~1년 미만)' 36.5%, '일용직(1개월 미만)' 2.4%였고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상용직' 81.8%, '임시직' 17.7%, '일용직' 0.5%였고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상용직' 83.3%, '임시직' 14.4%, '일용직' 2.3%였고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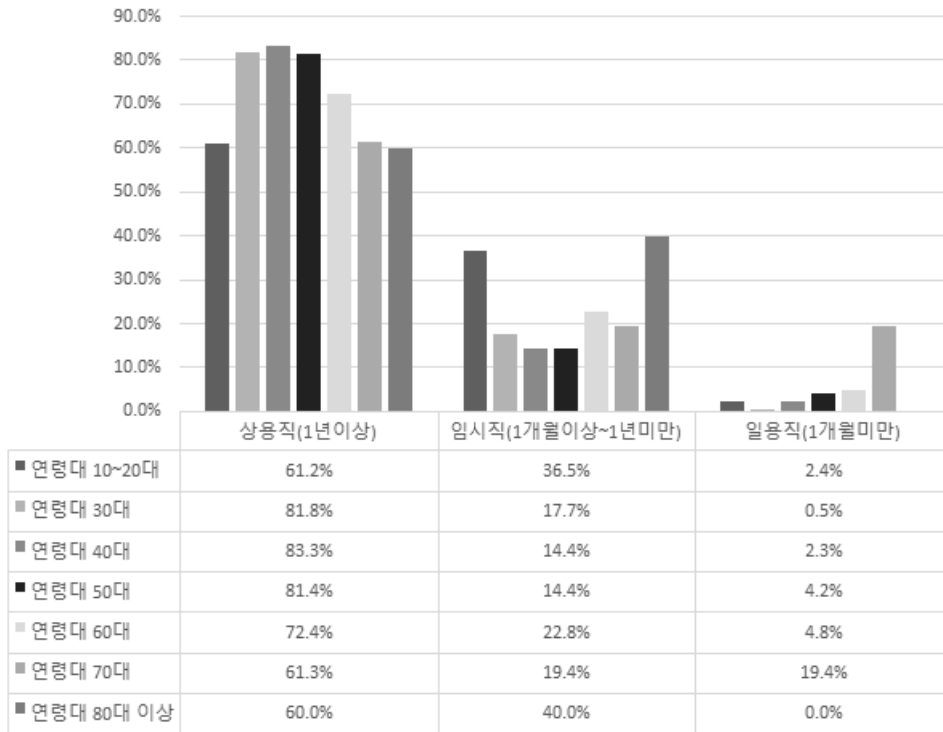
50대의 경우 '상용직' 81.4%, '임시직' 14.4%, '일용직' 4.2%였고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의 경우 '상용직' 72.4%, '임시직' 22.8%, '일용직' 4.8%였고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대의 경우 '상용직' 61.3%, '임시직' 19.4%, '일용직' 19.4%였고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상용직' 60.0%, '임시직' 40.0%, '일용직' 0%였고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5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3) 시간제, 전일제 여부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일제’의 비중이 높았다.

10~20대의 경우 ‘전일제’ 58.8%, ‘시간제’ 34.7%, ‘기타’ 6.5%였고 ‘전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의 경우 ‘전일제’ 74.2%, ‘시간제’ 22.1%, ‘기타’ 3.7%였고 ‘전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의 경우 ‘전일제’ 78.1%, ‘시간제’ 15.2%, ‘기타’ 6.6%였고 ‘전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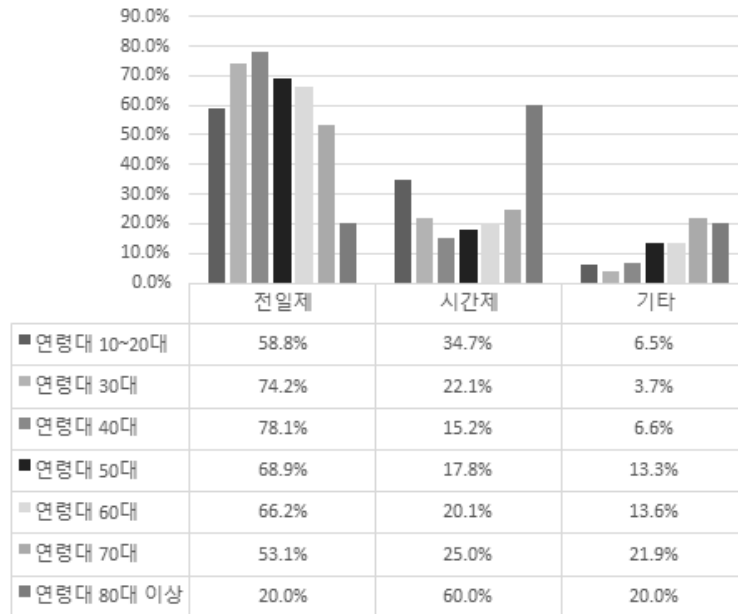
50대의 경우 ‘전일제’ 68.9%, ‘시간제’ 17.8%, ‘기타’ 13.3%였고 ‘전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0대의 경우 ‘전일제’ 66.2%, ‘시간제’ 20.1%, ‘기타’ 13.6%였고 ‘전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70대의 경우 ‘전일제’ 53.1%, ‘시간제’ 25.0%, ‘기타’ 21.9%였고 ‘전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80대 이상의 경우 ‘전일제’ 20%, ‘시간제’ 60%, ‘기타’ 20%였고 ‘전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6-6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



4. 주요 소득원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은 다음과 같다. 10~70대의 연령대에서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80대 이상부터는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0~20대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75.5%,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12.8%,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1.6%,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0.3%, ‘정부의 보조금’ 0.5%,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5%, ‘친인척의 보조금’ 0.5%, ‘기타’ 8.4%였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74.4%,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20.3%, ‘재산소득’ 0.7%,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0%, ‘정부의 보조금’ 0.4%,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 ‘친인척의 보조금’ 0.4%, ‘기타’ 3.9%였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0대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60.5%,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35.4%, ‘재산소득’ 1.0%,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0.2%, ‘정부의 보조금’ 0.5%,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0%, ‘친인척의 보조금’ 0.0%, ‘기타’ 2.4%였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0대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61.7%,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28.9%, ‘재산소득’ 1.1%,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2.2%, ‘정부의 보조금’ 1.7%,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0%, ‘친인척의 보조금’ 0.0%, ‘기타’ 4.5%였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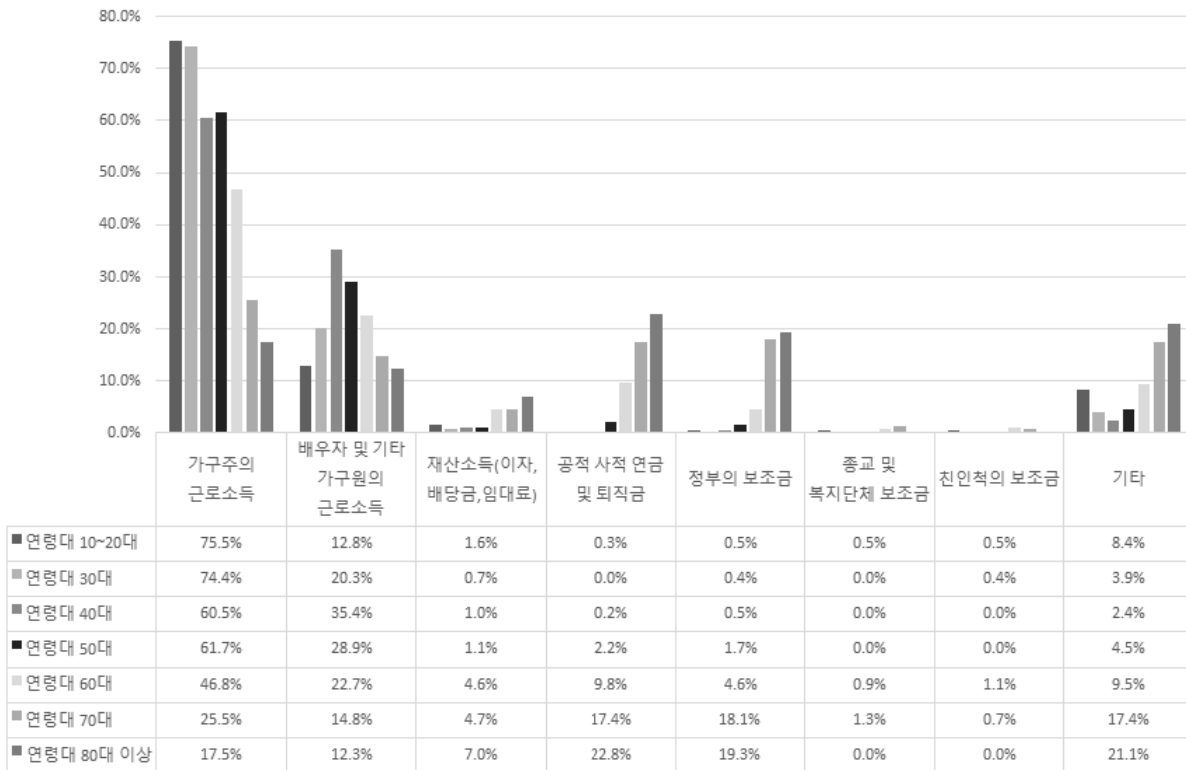
60대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46.8%,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22.7%, ‘재산소득’ 4.6%,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9.8%, ‘정부의 보조금’ 4.6%,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9%, ‘친인척의 보조금’ 1.1%, ‘기타’

9.5%였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0대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25.5%,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14.8%, ‘재산소득’ 4.7%,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17.4%, ‘정부의 보조금’ 18.1%,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1.3%, ‘친인척의 보조금’ 0.7%, ‘기타’ 17.4%였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17.5%,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12.3%, ‘재산소득’ 7.0%,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22.8%, ‘정부의 보조금’ 19.3%,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 ‘친인척의 보조금’ 0%, ‘기타’ 21.1%였고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6-7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5. 월 평균 가구소득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다. 70대~80대 이상은 ‘99만원 이하’, 10~30대, 50~60대는 ‘200~299만원’, 40대는 ‘400~499만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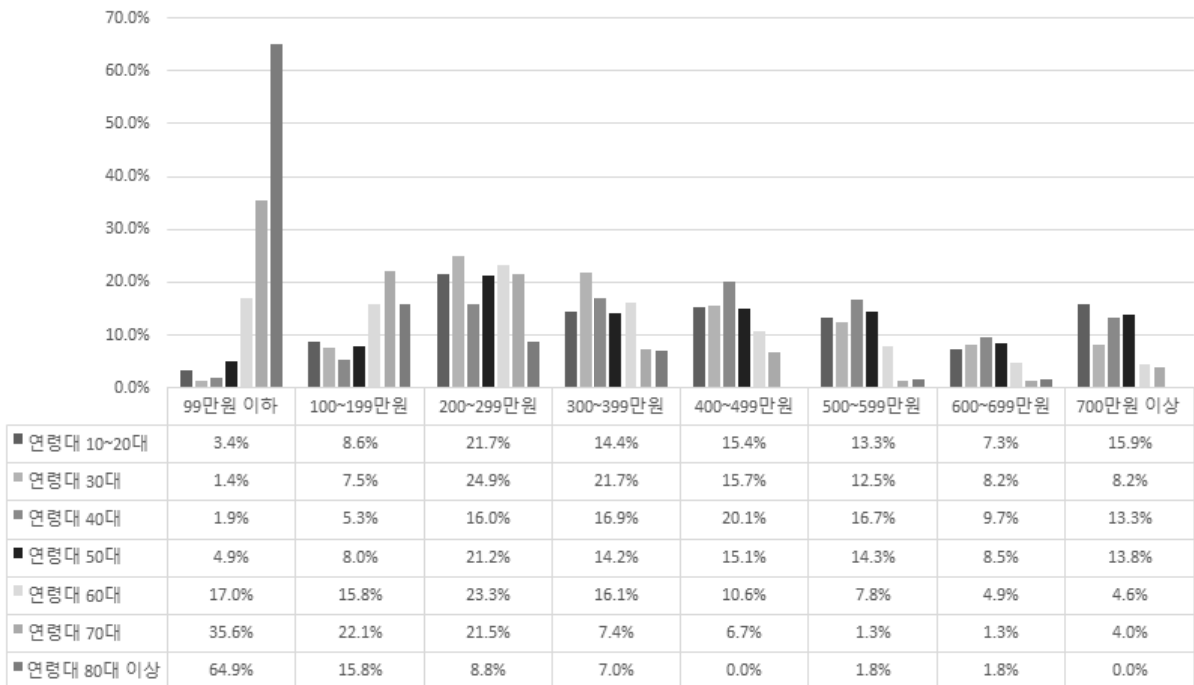
10대의 경우 ‘99만원 이하’ 3.4%, ‘100~199만원’ 8.6%, ‘200~299만원’ 21.7%, ‘300~399만원’ 14.4%, ‘400~499만원’ 15.4%, ‘500~599만원’ 13.3%, ‘600~699만원’ 7.3%, ‘700만원 이상’ 15.9%였으며 ‘200~299만원’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30대의 경우 ‘99만원 이하’ 1.4%, ‘100~199만원’ 7.5%, ‘200~299만원’ 24.9%, ‘300~399만원’ 21.7%, ‘400~499만원’ 15.7%, ‘500~599만원’ 12.5%, ‘600~699만원’ 8.2%, ‘700만원 이상’ 8.2%였으며 ‘200~299만원’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40대의 경우 ‘99만원 이하’ 1.9%, ‘100~199만원’ 5.3%, ‘200~299만원’ 16.0%, ‘300~399만원’ 16.9%, ‘400~499만원’ 20.1%, ‘500~599만원’ 16.7%, ‘600~699만원’ 9.7%, ‘700만원 이상’ 13.3%였으며 ‘400~499만원’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50대의 경우 ‘99만원 이하’ 4.9%, ‘100~199만원’ 8.0%, ‘200~299만원’ 21.2%, ‘300~399만원’ 14.2%, ‘400~499만원’ 15.1%, ‘500~599만원’ 14.3%, ‘600~699만원’ 8.5%, ‘700만원 이상’ 13.8%였으며 ‘200~299만원’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60대의 경우 ‘99만원 이하’ 17.0%, ‘100~199만원’ 15.8%, ‘200~299만원’ 23.3%, ‘300~399만원’ 16.1%, ‘400~499만원’ 10.6%, ‘500~599만원’ 7.8%, ‘600~699만원’ 4.9%, ‘700만원 이상’ 4.6%였으며 ‘200~299만원’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70대의 경우 ‘99만원 이하’ 35.6%, ‘100~199만원’ 22.1%, ‘200~299만원’ 21.5%, ‘300~399만원’ 7.4%, ‘400~499만원’ 6.7%, ‘500~599만원’ 1.3%, ‘600~699만원’ 1.3%, ‘700만원 이상’ 4.0%였으며 ‘99만원 이하’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99만원 이하’ 64.9%, ‘100~199만원’ 15.8%, ‘200~299만원’ 8.8%, ‘300~399만원’ 7.0%, ‘400~499만원’ 0%, ‘500~599만원’ 1.8%, ‘600~699만원’ 1.8%, ‘700만원 이상’ 0%였으며 ‘99만원 이하’의 구간이 가장 많았다. 70대~80대 이상은 ‘99만원 이하’, 10~30대, 50~60대는 ‘200~299만원’, 40대는 ‘400~499만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8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6. 사회·경제적 위치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10~60대에서는 ‘중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70~80대 이상의 경우 ‘최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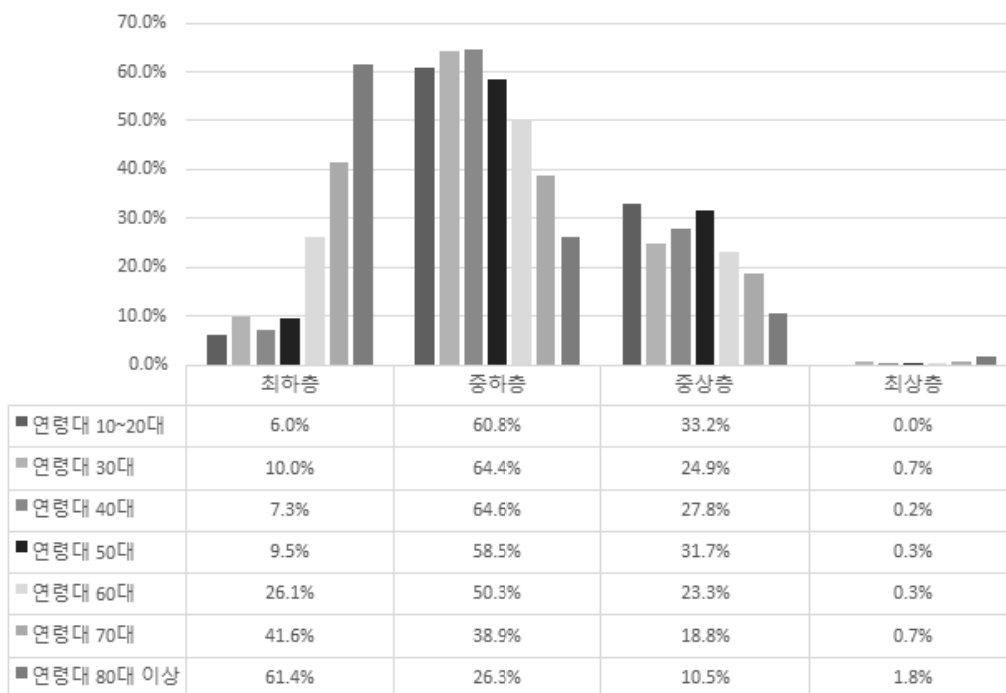
10대~20대의 경우 ‘최하층’ 6.0%, ‘중하층’ 60.8%, ‘중상층’ 33.2%, ‘최상층’ 0.0%였으며 ‘중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대~20대의 경우 ‘최하층’ 6.0%, ‘중하층’ 60.8%, ‘중상층’ 33.2%, ‘최상층’ 0.0%였으며 ‘중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최하층’ 10%, ‘중하층’ 64.4%, ‘중상층’ 24.9%, ‘최상층’ 0.7%였으며 ‘중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최하층’ 7.3%, ‘중하층’ 64.6%, ‘중상층’ 27.8%, ‘최상층’ 0.2%였으며 ‘중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경우 ‘최하층’ 9.5%, ‘중하층’ 58.5%, ‘중상층’ 31.7%, ‘최상층’ 0.3%였으며 ‘중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의 경우 ‘최하층’ 26.1%, ‘중하층’ 50.3%, ‘중상층’ 23.3%, ‘최상층’ 0.3%였으며 ‘중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대의 경우 ‘최하층’ 41.6%, ‘중하층’ 38.9%, ‘중상층’ 18.8%, ‘최상층’ 0.7%였으며 ‘최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최하층’ 61.4%, ‘중하층’ 26.3%, ‘중상층’ 10.5%, ‘최상층’ 1.8%였으며 ‘최하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9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7. 성향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은 다음과 같다. 10~60대는 ‘중도진보’, 70대는 ‘중도보수’, 80대 이상은 ‘보수’의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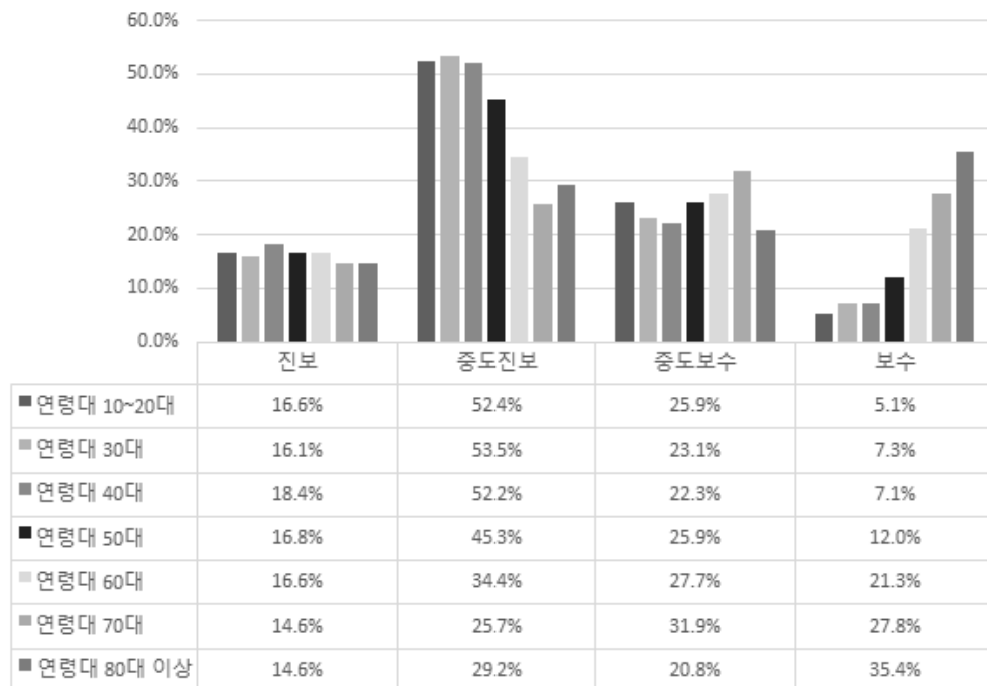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진보’ 16.6%, ‘중도진보’ 52.4%, ‘중도보수’ 25.9%, ‘보수’ 5.1%였고 ‘중도진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진보’ 16.1%, ‘중도진보’ 53.5%, ‘중도보수’ 23.1%, ‘보수’ 7.3%였고 ‘중도진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진보’ 18.4%, ‘중도진보’ 52.2%, ‘중도보수’ 22.3%, ‘보수’ 7.1%였고 ‘중도진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경우 ‘진보’ 16.8%, ‘중도진보’ 45.3%, ‘중도보수’ 25.9%, ‘보수’ 12.0%였고 ‘중도진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의 경우 ‘진보’ 16.6%, ‘중도진보’ 34.4%, ‘중도보수’ 27.7%, ‘보수’ 21.3%였고 ‘중도진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대의 경우 ‘진보’ 14.6%, ‘중도진보’ 25.7%, ‘중도보수’ 31.9%, ‘보수’ 27.8%였고 ‘중도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진보’ 14.6%, ‘중도진보’ 29.2%, ‘중도보수’ 20.8%, ‘보수’ 35.4%였고 ‘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10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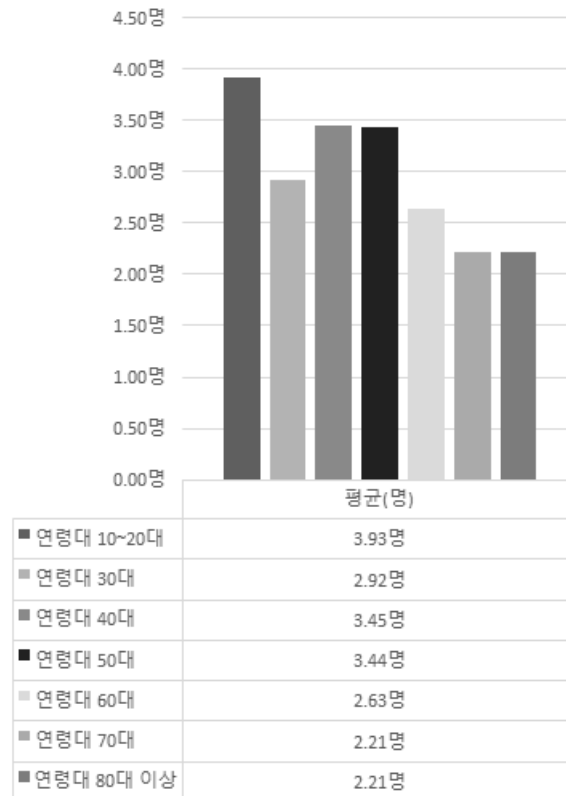


8. 가족 구성원 수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평균은 다음과 같다.

10~20대 3.93명, 30대 2.82명, 40대 3.45명, 50대 3.44명, 60대 2.63명, 70대 2.21명, 80대 이상은 2.21명이다.

그림 6-11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9. 가족 구성원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0~20대의 경우 '부모(본인부모)'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30대~80대 이상은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20대의 경우 '배우자' 7.9%, '부모(본인부모)' 85.2%, '부모(배우자부모)' 2.4%, '자녀(기혼)' 0%, '자녀(미혼)' 9.5%, '손자손녀' 0%, '친인척' 2%, '1인 거주' 3.8%, '기타' 35.9%였고 '부모(본인부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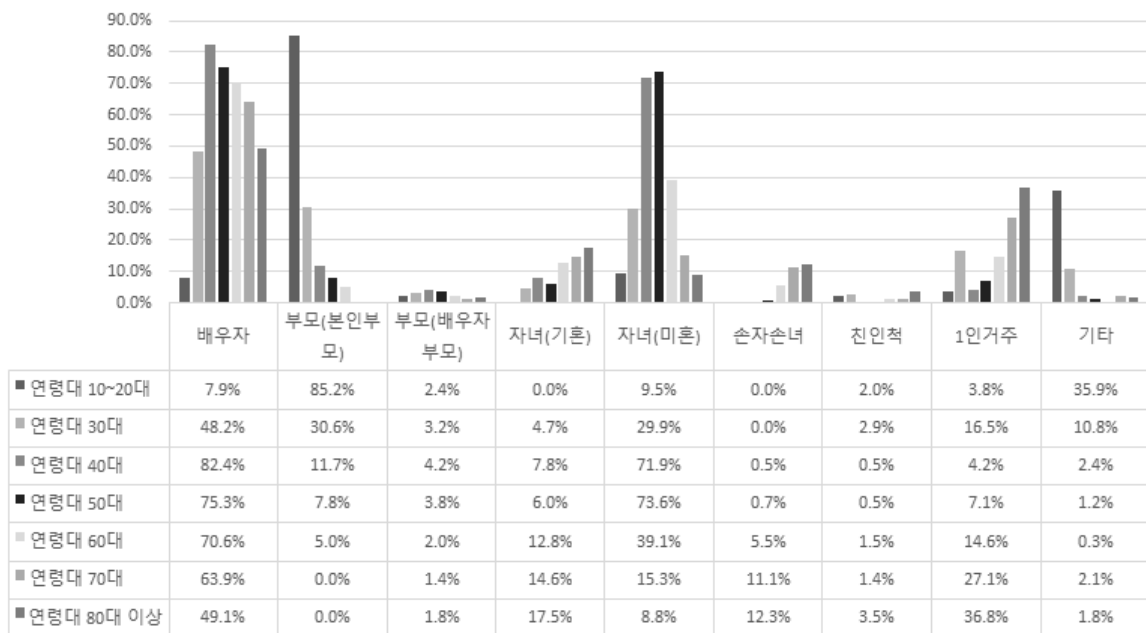
30대의 경우 '배우자' 48.2%, '부모(본인부모)' 30.6%, '부모(배우자부모)' 3.2%, '자녀(기혼)' 4.7%, '자녀(미혼)' 29.9%, '손자손녀' 0%, '친인척' 2.9%, '1인 거주' 16.5%, '기타' 10.8%였고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의 경우 '배우자' 82.4%, '부모(본인부모)' 11.7%, '부모(배우자부모)' 4.2%, '자녀(기혼)' 7.8%, '자녀(미혼)' 71.9%, '손자손녀' 0.5%, '친인척' 0.5%, '1인 거주' 4.2%, '기타' 2.4%였고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경우 ‘배우자’ 75.3%, ‘부모(본인부모)’ 7.8%, ‘부모(배우자부모)’ 3.8%, ‘자녀(기혼)’ 6.0%, ‘자녀(미혼)’ 73.6%, ‘손자손녀’ 0.7%, ‘친인척’ 0.5%, ‘1인 거주’ 7.1%, ‘기타’ 1.2%였고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대의 경우 ‘배우자’ 70.6%, ‘부모(본인부모)’ 5.0%, ‘부모(배우자부모)’ 2.0%, ‘자녀(기혼)’ 12.8%, ‘자녀(미혼)’ 39.1%, ‘손자손녀’ 5.5%, ‘친인척’ 1.5%, ‘1인 거주’ 14.6%, ‘기타’ 0.3%였고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0대의 경우 ‘배우자’ 63.9%, ‘부모(본인부모)’ 0%, ‘부모(배우자부모)’ 1.4%, ‘자녀(기혼)’ 14.6%, ‘자녀(미혼)’ 15.3%, ‘손자손녀’ 11.1%, ‘친인척’ 1.4%, ‘1인 거주’ 27.1%, ‘기타’ 2.1%였고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배우자’ 49.1%, ‘부모(본인부모)’ 0%, ‘부모(배우자부모)’ 1.8%, ‘자녀(기혼)’ 17.5%, ‘자녀(미혼)’ 8.8%, ‘손자손녀’ 12.3%, ‘친인척’ 3.5%, ‘1인 거주’ 36.8%, ‘기타’ 1.8%였고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6-12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10. 주거형태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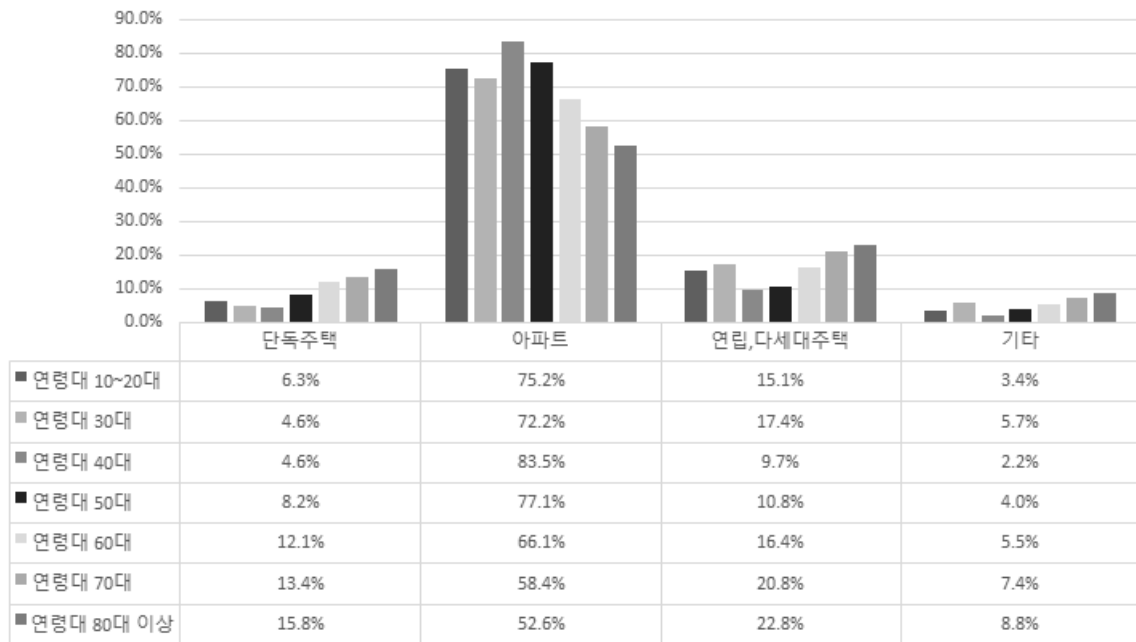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단독주택’ 6.3%, ‘아파트’ 75.2%, ‘연립, 다세대 주택’ 15.1%, ‘기타’ 3.4%였다.

30대의 경우 ‘단독주택’ 4.6%, ‘아파트’ 75.2%, ‘연립, 다세대 주택’ 17.4%, ‘기타’ 5.7%였다. 40대의 경우 ‘단독주택’ 4.6%, ‘아파트’ 83.5%, ‘연립, 다세대 주택’ 9.7%, ‘기타’ 2.2%였다.

50대의 경우 ‘단독주택’ 8.2%, ‘아파트’ 77.1%, ‘연립, 다세대 주택’ 10.8%, ‘기타’ 4.0%였다. 60대의 경우 ‘단독주택’ 12.1%, ‘아파트’ 66.1%, ‘연립, 다세대 주택’ 16.4%, ‘기타’ 5.5%였다.

70대의 경우 ‘단독주택’ 13.4%, ‘아파트’ 58.4%, ‘연립, 다세대 주택’ 20.8%, ‘기타’ 7.4%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단독주택’ 15.8%, ‘아파트’ 52.6%, ‘연립, 다세대 주택’ 22.8%, ‘기타’ 8.8%였다.

그림 6-13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11. 점유형태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점유형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대에서 '자기 집'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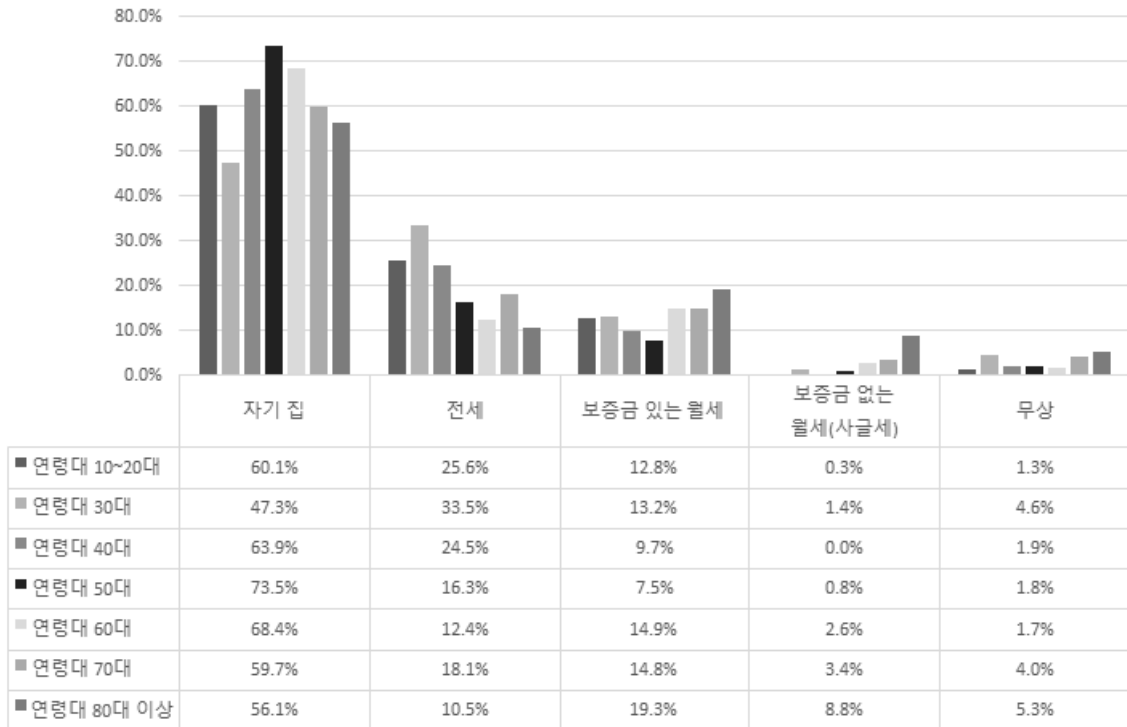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자기 집' 60.1%, '전세' 25.6%, '보증금 있는 월세' 12.8%,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3%, '무상' 1.3%였다.

30대의 경우 '자기 집' 47.3%, '전세' 33.5%, '보증금 있는 월세' 13.2%, '보증금 없는 월세' 1.4%, '무상' 4.6%였다. 40대의 경우 '자기 집' 63.9%, '전세' 24.5%, '보증금 있는 월세' 9.7%, '보증금 없는 월세' 0%, '무상' 1.9%였다.

50대의 경우 '자기 집' 73.5%, '전세' 16.3%, '보증금 있는 월세' 7.5%, '보증금 없는 월세' 0.8%, '무상' 1.8%였다. 60대의 경우 '자기 집' 68.4%, '전세' 12.4%, '보증금 있는 월세' 14.9%, '보증금 없는 월세' 2.6%, '무상' 1.7%였다.

70대의 경우 '자기 집' 59.7%, '전세' 18.1%, '보증금 있는 월세' 14.8%, '보증금 없는 월세' 3.4%, '무상' 4.0%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자기 집' 56.1%, '전세' 10.5%, '보증금 있는 월세' 19.3%, '보증금 없는 월세' 8.8%, '무상' 5.3%였다.

그림 6-14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12. 출근 및 통학 지역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은 10~60대의 경우 ‘고양시 내’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70~80대 이상의 경우 ‘출퇴근(통근/통학)안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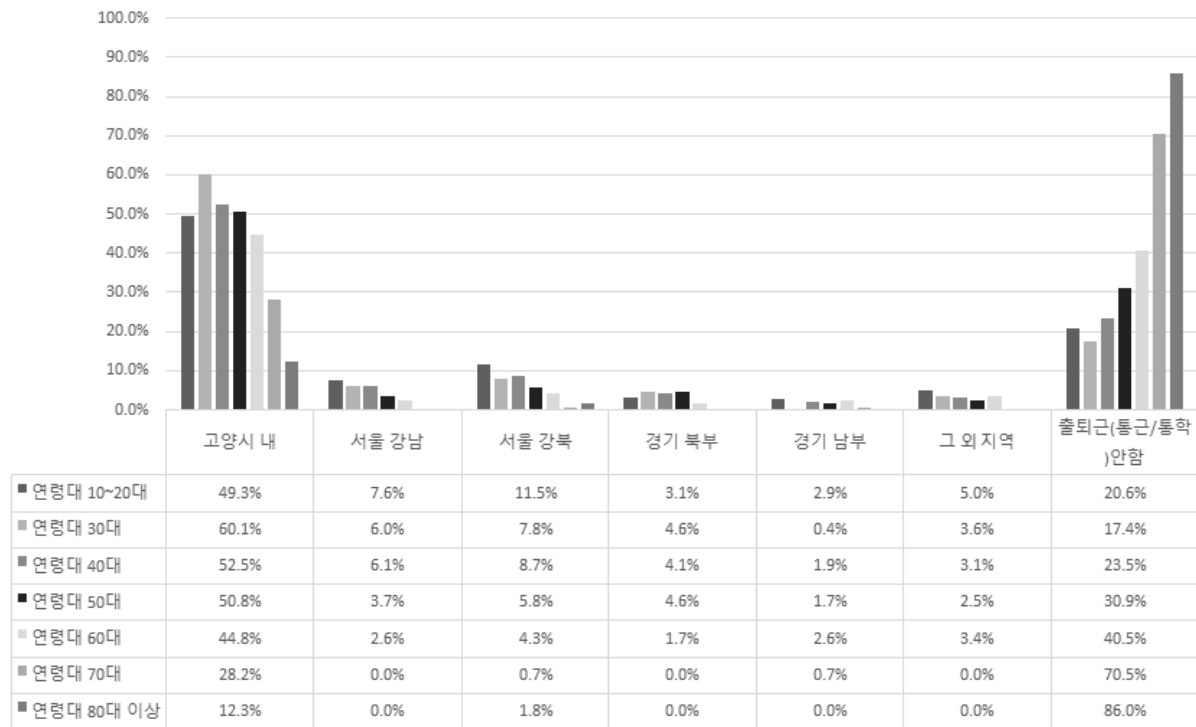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고양시 내’ 49.3%, ‘서울 강남’ 7.6%, ‘서울 강북’ 11.5%, ‘경기 북부’ 3.1%, ‘경기 남부’ 2.9%, ‘그 외 지역’ 5.0%, ‘출퇴근(통근/통학)안함’ 20.6%였다.

30대의 경우 ‘고양시 내’ 60.1%, ‘서울 강남’ 6.0%, ‘서울 강북’ 7.8%, ‘경기 북부’ 4.6%, ‘경기 남부’ 0.4%, ‘그 외 지역’ 3.6%, ‘출퇴근(통근/통학)안함’ 17.4%였다. 40대의 경우 ‘고양시 내’ 52.5%, ‘서울 강남’ 6.1%, ‘서울 강북’ 8.7%, ‘경기 북부’ 4.1%, ‘경기 남부’ 1.9%, ‘그 외 지역’ 3.1%, ‘출퇴근(통근/통학)안함’ 23.5%였다.

50대의 경우 ‘고양시 내’ 50.8%, ‘서울 강남’ 3.7%, ‘서울 강북’ 5.8%, ‘경기 북부’ 4.6%, ‘경기 남부’ 1.7%, ‘그 외 지역’ 2.5%, ‘출퇴근(통근/통학)안함’ 30.9%였다. 60대의 경우 ‘고양시 내’ 44.8%, ‘서울 강남’ 2.6%, ‘서울 강북’ 4.3%, ‘경기 북부’ 1.7%, ‘경기 남부’ 2.6%, ‘그 외 지역’ 3.4%, ‘출퇴근(통근/통학)안함’ 40.5%였다.

70대의 경우 ‘고양시 내’ 28.2%, ‘서울 강남’ 0%, ‘서울 강북’ 0.7%, ‘경기 북부’ 0%, ‘경기 남부’ 0.7%, ‘그 외 지역’ 0%, ‘출퇴근(통근/통학)안함’ 70.5%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고양시 내’ 12.3%, ‘서울 강남’ 0%, ‘서울 강북’ 1.8%, ‘경기 북부’ 0%, ‘경기 남부’ 0%, ‘그 외 지역’ 0%, ‘출퇴근(통근/통학)안함’ 86.0%였다.

그림 6-15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13. 출근 및 통학 수단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은 다음과 같다. 10~20대의 경우 ‘버스’, 30대~50대의 경우 ‘개인 승용차’, 60~80대 이상의 경우 ‘기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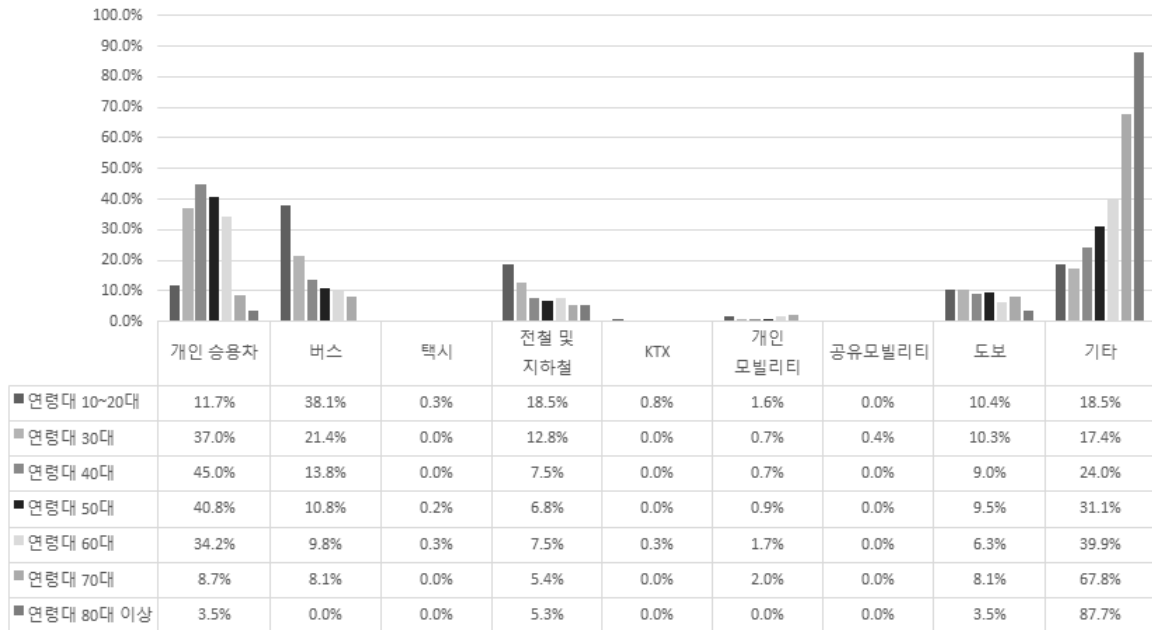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개인(가족) 승용차’ 11.7%, ‘버스’ 38.1%, ‘택시’ 0.3%, ‘전철 및 지하철’ 18.5%, ‘KTX’ 0.8%, ‘개인 모빌리티’ 1.6%,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10.4%, ‘기타’ 18.5%였다.

30대의 경우 ‘개인 승용차’ 37.0%, ‘버스’ 21.4%, ‘택시’ 0%, ‘전철 및 지하철’ 12.8%, ‘KTX’ 0%, ‘개인 모빌리티’ 0.7%, ‘공유 모빌리티’ 0.4%, ‘도보’ 10.3%, ‘기타’ 17.4%였다. 40대의 경우 ‘개인 승용차’ 45.0%, ‘버스’ 13.8%, ‘택시’ 0%, ‘전철 및 지하철’ 7.5%, ‘KTX’ 0%, ‘개인 모빌리티’ 0.7%,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9.0%, ‘기타’ 24.0%였다.

50대의 경우 ‘개인 승용차’ 40.8%, ‘버스’ 10.8%, ‘택시’ 0.2%, ‘전철 및 지하철’ 6.8%, ‘KTX’ 0%, ‘개인 모빌리티’ 0.9%,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9.5%, ‘기타’ 31.1%였다. 60대의 경우 ‘개인 승용차’ 34.2%, ‘버스’ 9.8%, ‘택시’ 0.3%, ‘전철 및 지하철’ 7.5%, ‘KTX’ 0.3%, ‘개인 모빌리티’ 1.7%,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6.3%, ‘기타’ %였다.

70대의 경우 ‘개인 승용차’ 8.7%, ‘버스’ 8.1%, ‘택시’ 0%, ‘전철 및 지하철’ 5.4%, ‘KTX’ 0%, ‘개인 모빌리티’ 2.0%,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8.1%, ‘기타’ 67.8%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개인 승용차’ 3.5%, ‘버스’ 0%, ‘택시’ 0%, ‘전철 및 지하철’ 5.3%, ‘KTX’ 0%, ‘개인 모빌리티’ 0%,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3.5%, ‘기타’ 87.7%였다.

그림 6-16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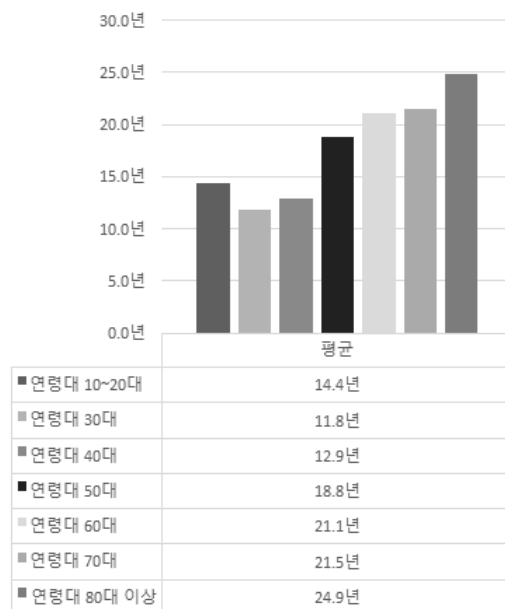


14. 거주 기간 및 지속 여부

(1) 거주 기간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평균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다. 10~20대는 14.4년, 30대는 11.8년, 40대는 12.9년, 50대는 18.8년, 60대는 21.1년, 70대는 21.5년, 80대 이상은 24.9년으로 나타났다.

그림 6-17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2) 지속 의향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은 다음과 같다. 10~40대의 경우 ‘어느 정도 그렇다’가 가장 높았으며, 50~80대 이상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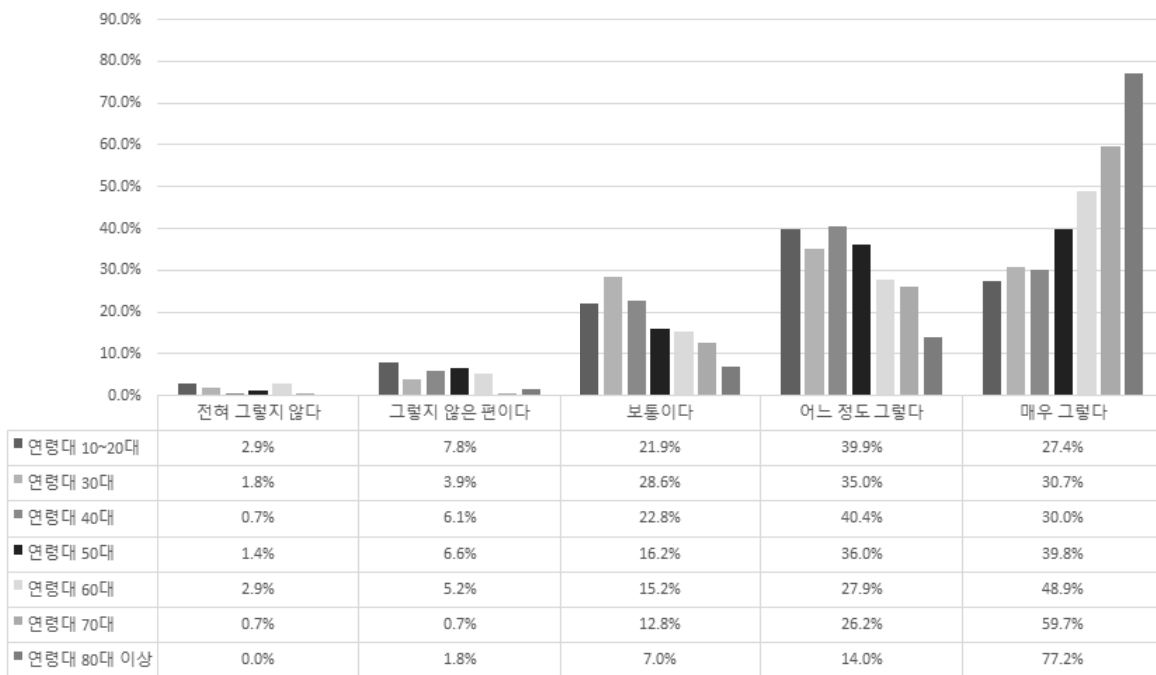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7.8%, ‘보통이다’ 21.9%, ‘어느 정도 그렇다’ 39.9%, ‘매우 그렇다’ 27.4%였다.

30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9%, ‘보통이다’ 28.6%, ‘어느 정도 그렇다’ 35.0%, ‘매우 그렇다’ 30.7%였다. 40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6.1%, ‘보통이다’ 22.8%, ‘어느 정도 그렇다’ 40.4%, ‘매우 그렇다’ 30.0%였다.

50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 ‘보통이다’ 16.2%, ‘어느 정도 그렇다’ 36.0%, ‘매우 그렇다’ 39.8%였다. 60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2.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 ‘보통이다’ 15.2%, ‘어느 정도 그렇다’ 27.9%, ‘매우 그렇다’ 48.9%였다.

70대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0.7%, ‘보통이다’ 12.8%, ‘어느 정도 그렇다’ 26.2%, ‘매우 그렇다’ 59.7%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 ‘보통이다’ 7.0%, ‘어느 정도 그렇다’ 14.0%, ‘매우 그렇다’ 77.2%였다.

그림 6-18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15. 애착도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에 대한 애착도는 다음과 같다. 10~20대의 경우 ‘애착도 조금 있음’이 가장 높았으며, 30대~40대의 경우 ‘보통’, 50~80대 이상의 경우 ‘애착도 매우 많음’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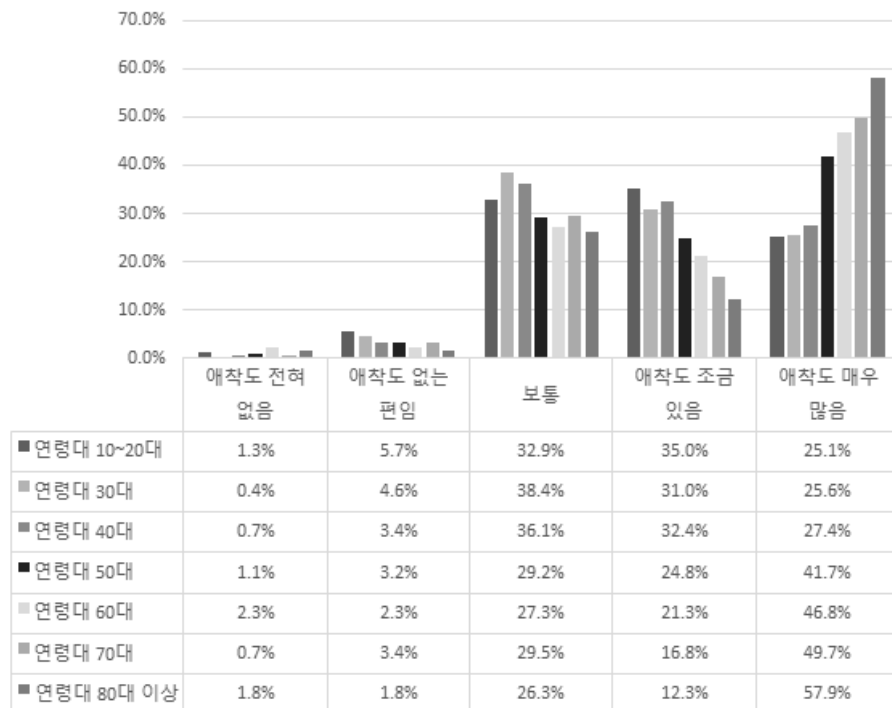
10~20대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3%, ‘애착도 없는 편임’ 5.7%, ‘보통’ 32.9%, ‘애착도 조금 있음’ 35.0%, ‘애착도 매우 많음’ 25.1%였다.

30대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0.4%, ‘애착도 없는 편임’ 4.6%, ‘보통’ 38.4%, ‘애착도 조금 있음’ 31.0%, ‘애착도 매우 많음’ 25.6%였다. 40대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0.7%, ‘애착도 없는 편임’ 3.4%, ‘보통’ 36.1%, ‘애착도 조금 있음’ 32.4%, ‘애착도 매우 많음’ 27.4%였다.

50대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1%, ‘애착도 없는 편임’ 3.2%, ‘보통’ 29.2%, ‘애착도 조금 있음’ 24.8%, ‘애착도 매우 많음’ 41.7%였다. 60대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2.3%, ‘애착도 없는 편임’ 2.3%, ‘보통’ 27.3%, ‘애착도 조금 있음’ 21.3%, ‘애착도 매우 많음’ 46.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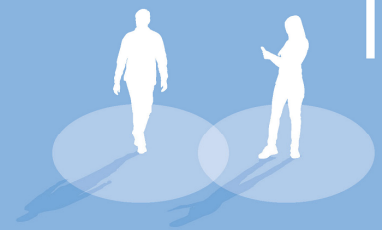
70대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0.7%, ‘애착도 없는 편임’ 3.4%, ‘보통’ 29.5%, ‘애착도 조금 있음’ 16.8%, ‘애착도 매우 많음’ 49.7%였다. 80대 이상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8%, ‘애착도 없는 편임’ 1.8%, ‘보통’ 26.3%, ‘애착도 조금 있음’ 12.3%, ‘애착도 매우 많음’ 57.9%였다.

그림 6-19 연령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7 장

고양시민 인구사회학적 조사 거주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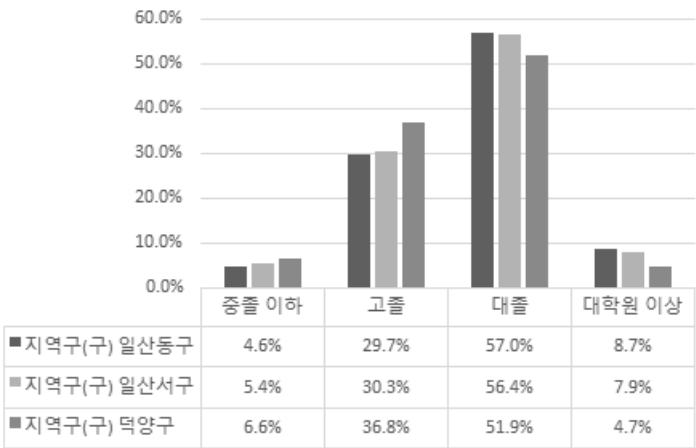
제1절 거주지별 분석

1. 학력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은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의 경우 ‘중졸 이하’ 4.6%, ‘고졸’ 29.7%, ‘대졸’ 57.0%, ‘대학원 이상’ 8.7%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중졸 이하’ 5.4%, ‘고졸’ 30.3%, ‘대졸’ 56.4%, ‘대학원 이상’ 7.9%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중졸 이하’ 6.6%, ‘고졸’ 36.8%, ‘대졸’ 51.9%, ‘대학원 이상’ 4.7%였다. 모든 구에서 ‘대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7-1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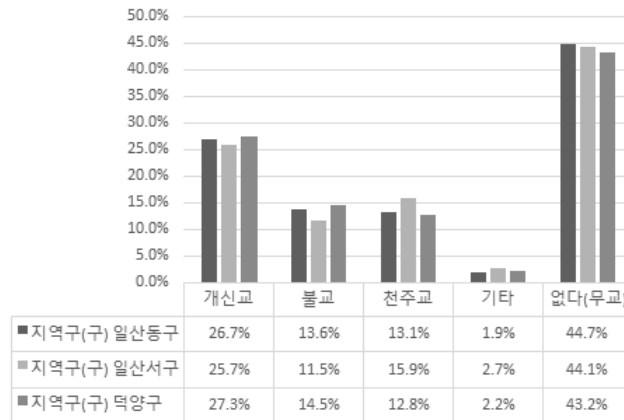


2. 종교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는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의 경우 ‘개신교’ 26.7%, ‘불교’ 13.6%, ‘천주교’ 13.1%, ‘기타’ 1.9%, ‘없다(무교)’ 44.7%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개신교’ 25.7%, ‘불교’ 11.5%, ‘천주교’ 15.9%, ‘기타’ 2.7%, ‘없다(무교)’ 44.1%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개신교’ 27.3%, ‘불교’ 14.5%, ‘천주교’ 12.8%, ‘기타’ 2.2%, ‘없다(무교)’ 43.2%였다. 모든 구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림 7-2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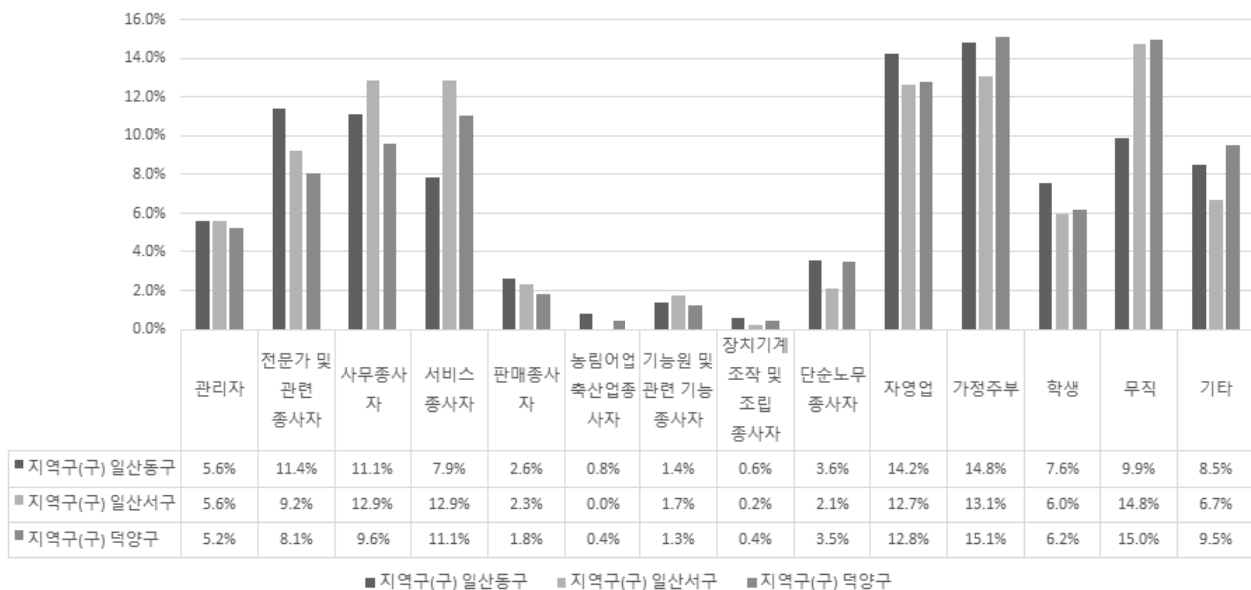


3. 직업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의 경우 ‘관리자’ 5.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4%, ‘사무종사자’ 11.1%, ‘서비스종사자’ 7.9%, ‘판매종사자’ 2.6%,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6%, ‘단순노무종사자’ 3.6%, ‘자영업’ 14.2%, ‘가정주부’ 14.8%, ‘학생’ 7.6%, ‘무직’ 9.9%, ‘기타’ 8.5%였다. 일산서구의 경우 ‘관리자’ 5.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 ‘사무종사자’ 12.9%, ‘서비스종사자’ 12.9%, ‘판매종사자’ 2.3%,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2%, ‘단순노무종사자’ 2.1%, ‘자영업’ 12.7%, ‘가정주부’ 13.1%, ‘학생’ 6.0%, ‘무직’ 14.8%, ‘기타’ 6.7%였다.

그림 7-3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직업



덕양구의 경우 ‘관리자’ 5.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1%, ‘사무종사자’ 9.6%, ‘서비스종사자’ 11.1%, ‘판매 종사자’ 1.8%, ‘농림어업축산업종사자’ 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 ‘단순노무종사자’ 3.5%, ‘자영업’ 12.8%, ‘가정주부’ 15.1%, ‘학생’ 6.2%, ‘무직’ 15.0%, ‘기타’ 9.5%였다. 일산동구와 덕양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가정주부’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무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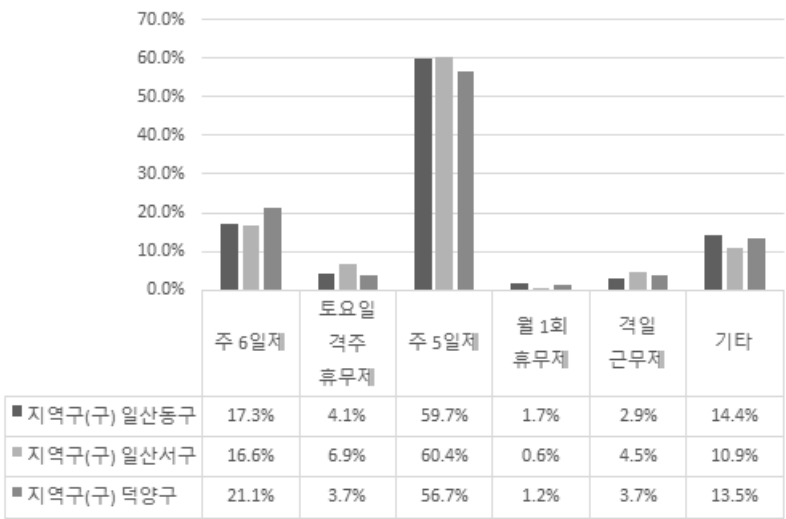
(1) 근무 형태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구에서 ‘주 5일제’가 근무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산동구의 경우 ‘주 6일제’ 17.3%, ‘토요일 격주 휴무제’ 4.1%, ‘주 5일제’ 59.7%, ‘월 1회 휴무제’ 1.7%, ‘격일 근무제’ 2.9%, ‘기타’ 14.4%였다. 일산서구의 경우 ‘주 6일제’ 16.6%, ‘토요일 격주 휴무제’ 6.9%, ‘주 5일제’ 60.4%, ‘월 1회 휴무제’ 0.6%, ‘격일 근무제’ 4.5%, ‘기타’ 10.9%였다. 덕양구의 경우 ‘주 6일제’ 21.1%, ‘토요일 격주 휴무제’ 3.7%, ‘주 5일제’ 56.7%, ‘월 1회 휴무제’ 1.2%, ‘격일 근무제’ 3.7%, ‘기타’ 13.5%였다.

그림 7-4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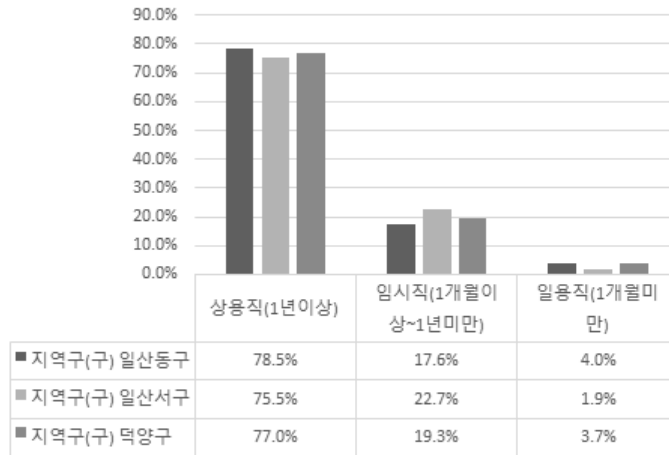
(2) 근무 유형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구에서 ‘상용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산동구의 경우 ‘상용직(1년 이상)’ 78.5%, ‘임시직(1개월 이상~1년 미만)’ 17.6%, ‘일용직(1개월 미만)’ 4.0%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상용직’ 75.5%, ‘임시직’ 22.7%, ‘일용직’ 1.9%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상용직’ 77.0%, ‘임시직’ 19.3%, ‘일용직’ 3.7%였다.

그림 7-5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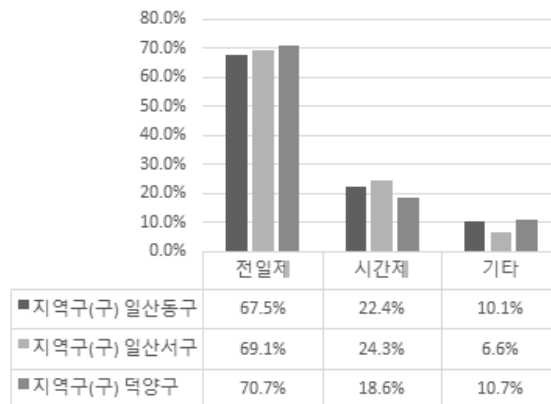
(3) 시간제, 전일제 여부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시간제, 전일제 여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구에서 ‘상용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산동구의 경우 ‘전일제’ 67.5%, ‘시간제’ 22.4%, ‘기타’ 10.1%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전일제’ 69.1%, ‘시간제’ 24.3%, ‘기타’ 6.6%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전일제’ 70.7%, ‘시간제’ 18.6%, ‘기타’ 10.7%였다.

그림 7-6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근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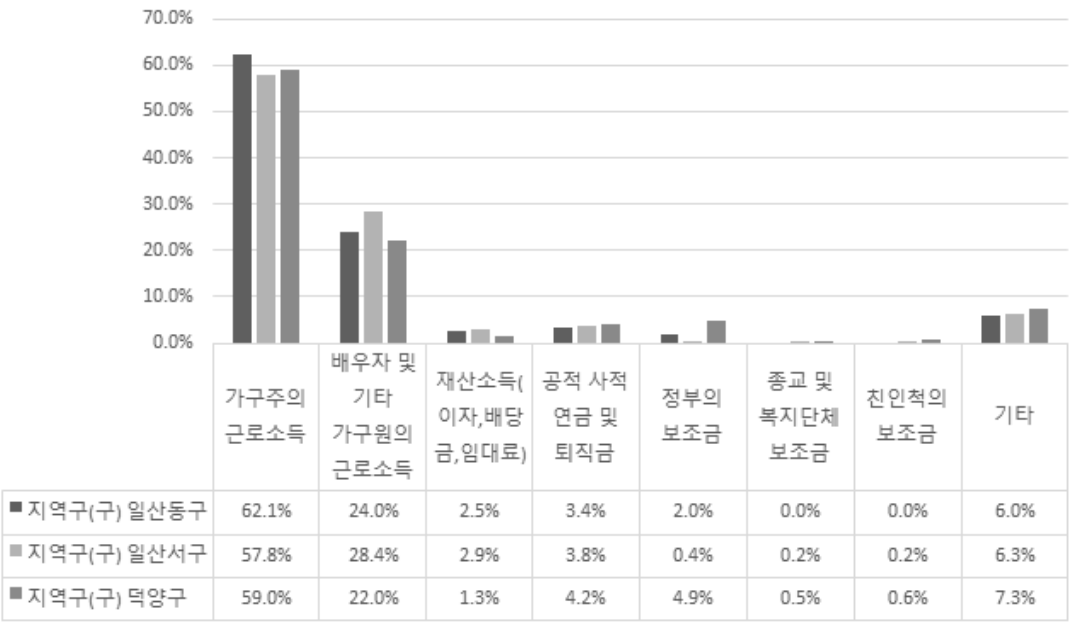
4. 주요 소득원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은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62.1%,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24.0%,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2.5%,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3.4%, ‘정부의 보조금’ 2.0%,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 ‘친인척의 보조금’ 0%, ‘기타’ 6.0%였다. 일산서구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57.8%,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

소득’ 28.4%,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2.9%,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3.8%, ‘정부의 보조금’ 0.4%,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2%, ‘친인척의 보조금’ 0.2%, ‘기타’ 6.3%였다. 덕양구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 59.0%,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22.0%,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1.3%,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4.2%, ‘정부의 보조금’ 4.9%,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0.5%, ‘친인척의 보조금’ 0.6%, ‘기타’ 7.3%였다.

그림 7-7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요 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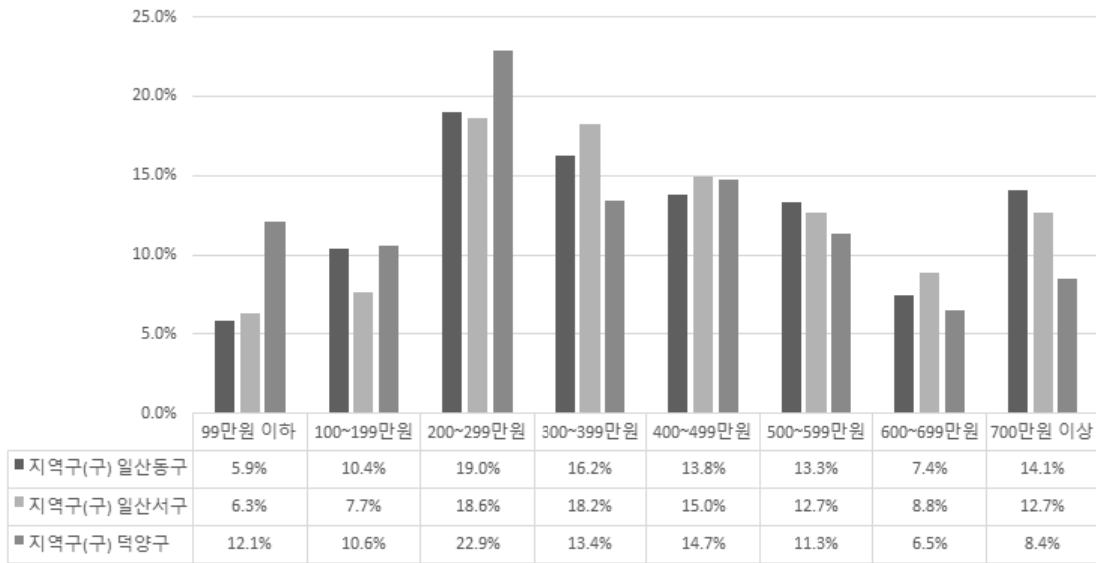
5. 월 평균 가구소득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구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 구간 중 ‘200~299만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산동구의 경우 ‘99만원 이하’ 5.9%, ‘100~199만원’ 10.4%, ‘200~299만원’ 19.0%, ‘300~399만원’ 16.2%, ‘400~499만원’ 13.8%, ‘500~599만원’ 13.3%, ‘600~699만원’ 7.4%, ‘700만원 이상’ 14.1%였다. 일산서구의 경우 ‘99만원 이하’ 6.3%, ‘100~199만원’ 7.7%, ‘200~299만원’ 18.6%, ‘300~399만원’ 18.2%, ‘400~499만원’ 15.0%, ‘500~599만원’ 12.7%, ‘600~699만원’ 8.8%, ‘700만원 이상’ 12.7%였다. 덕양구의 경우 ‘99만원 이하’ 12.1%, ‘100~199만원’ 10.6%, ‘200~299만원’ 22.9%, ‘300~399만원’ 13.4%, ‘400~499만원’ 14.7%, ‘500~599만원’ 11.3%, ‘600~699만원’ 6.5%, ‘700만원 이상’ 8.4%였다.

그림 7-8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월 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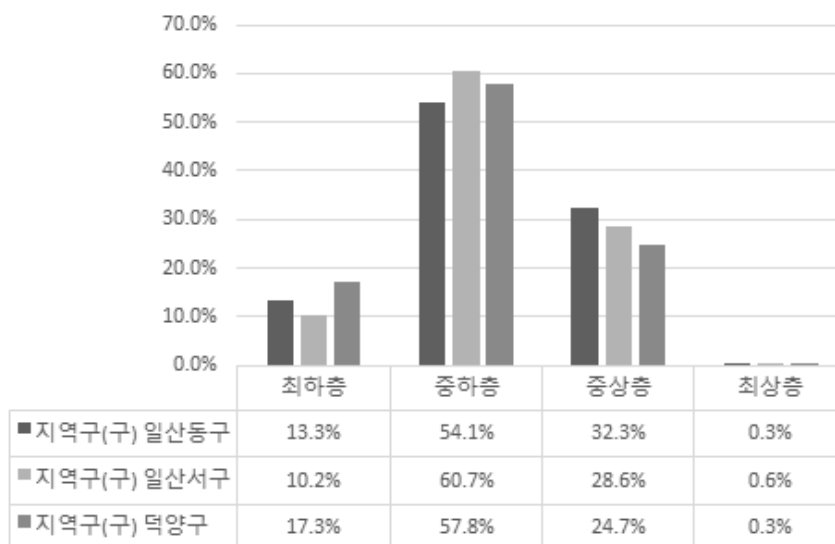


6. 사회·경제적 위치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모든 구에서 '중하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산동구의 경우 '최하층' 13.3%, '중하층' 54.1%, '중상층' 32.3%, '최상층' 0.3%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최하층' 10.2%, '중하층' 60.7%, '중상층' 28.6%, '최상층' 0.6%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최하층' 17.3%, '중하층' 57.8%, '중상층' 24.7%, '최상층' 0.3%였다.

그림 7-9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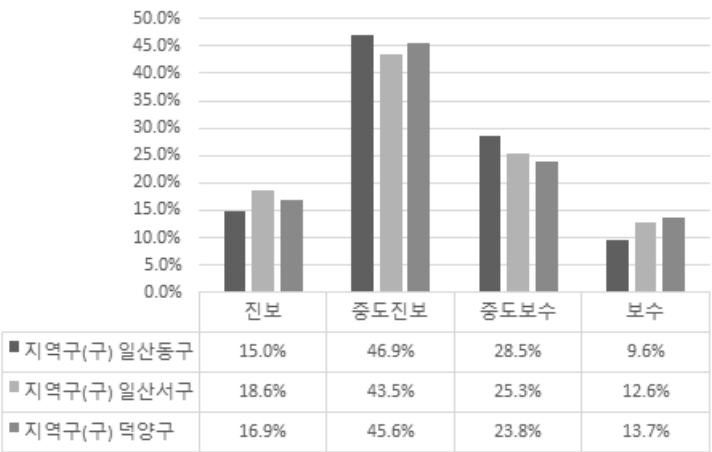


7. 성향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은 모든 구에서 ‘중도진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산동구의 경우 ‘진보’ 15.0%, ‘중도진보’ 46.9%, ‘중도보수’ 28.5%, ‘보수’ 9.6%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진보’ 18.6%, ‘중도진보’ 43.5%, ‘중도보수’ 25.3%, ‘보수’ 12.6%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진보’ 16.9%, ‘중도진보’ 45.6%, ‘중도보수’ 23.8%, ‘보수’ 13.7%였다.

그림 7-10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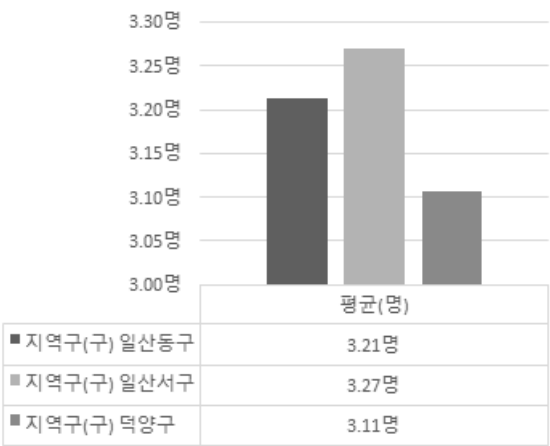


8. 가족 구성원 수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평균 구성원 수는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의 경우 3.21명, 일산서구의 경우 3.27명, 덕양구의 경우 3.11명이었다.

그림 7-11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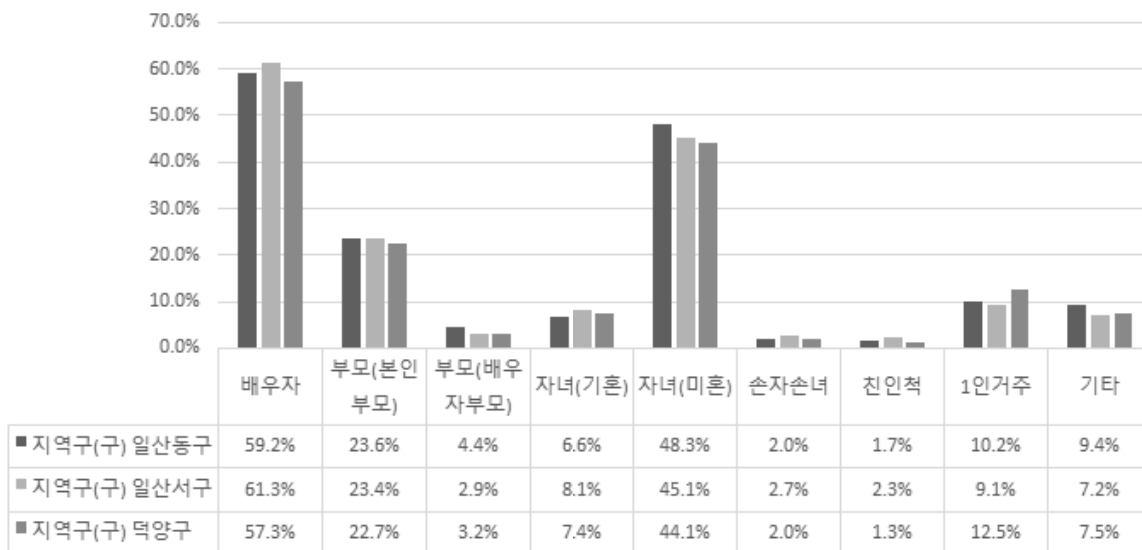
9. 가족 구성원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구에서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동구의 경우 ‘배우자’ 59.2%, ‘부모(본인부모)’ 23.6%, ‘부모(배우자부모)’ 4.4%, ‘자녀(기혼)’ 6.6%, ‘자녀(미혼)’ 48.3%, ‘손자손녀’ 2.0%, ‘친인척’ 1.7%, ‘1인 거주’ 10.2%, ‘기타’ 9.4%였다. 일산서구의 경우 ‘배우자’ 61.3%, ‘부모(본인부모)’ 23.4%, ‘부모(배우자부모)’ 2.9%, ‘자녀(기혼)’ 8.1%, ‘자녀(미혼)’ 45.1%, ‘손자손녀’ 2.7%, ‘친인척’ 2.3%, ‘1인 거주’ 9.1%, ‘기타’ 7.2%였다. 덕양구의 경우 ‘배우자’ 57.3%, ‘부모(본인부모)’ 22.7%, ‘부모(배우자부모)’ 3.2%, ‘자녀(기혼)’ 7.4%, ‘자녀(미혼)’ 44.1%, ‘손자손녀’ 2.0%, ‘친인척’ 1.3%, ‘1인 거주’ 12.5%, ‘기타’ 7.5%였다.

그림 7-12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가족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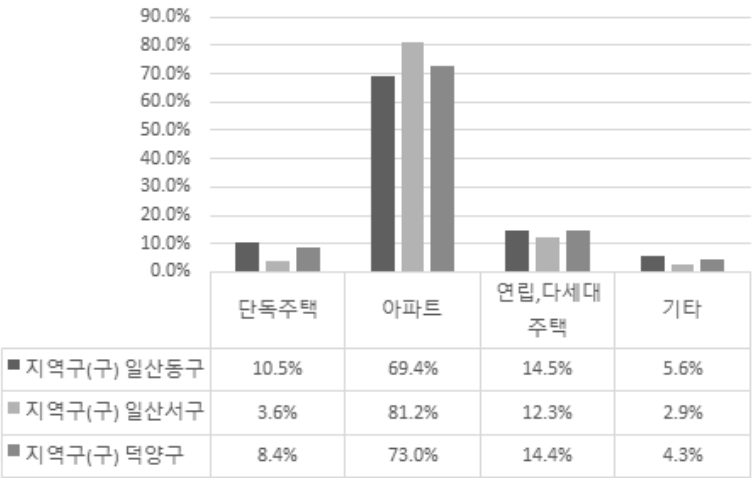


10. 주거형태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는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산동구의 경우 ‘단독주택’ 10.5%, ‘아파트’ 69.4%, ‘연립, 다세대 주택’ 14.5%, ‘기타’ 5.6%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단독주택’ 3.6%, ‘아파트’ 81.2%, ‘연립, 다세대주택’ 2.9%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단독주택’ 8.4%, ‘아파트’ 73.0%, ‘연립, 다세대주택’ 14.4%, ‘기타’ 4.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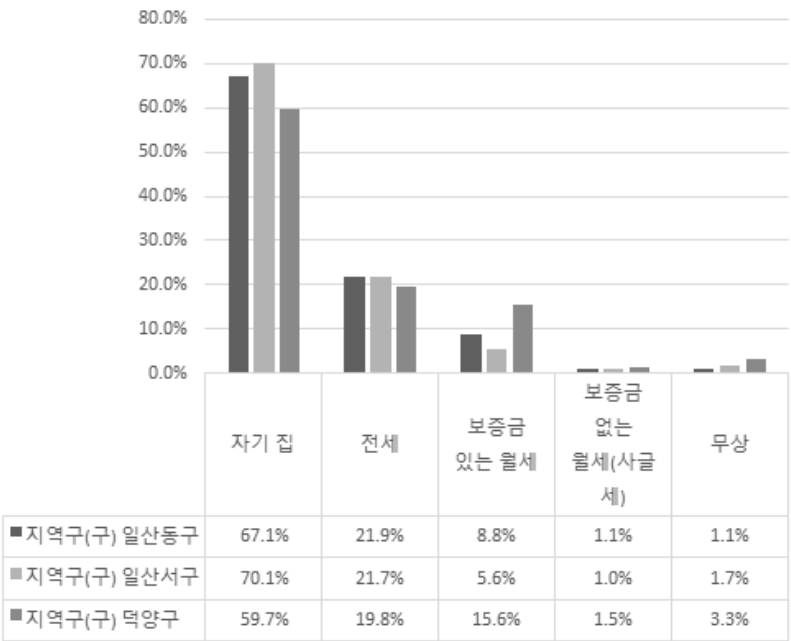
그림 7-13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형태



11. 점유형태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점유형태는 모든 구에서 ‘자기 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산동구의 경우 ‘자기 집’ 67.1%, ‘전세’ 21.9%, ‘보증금 있는 월세’ 8.8%, ‘보증금 없는 월세’ 1.1%, ‘무상’ 1.1% 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자기 집’ 70.1%, ‘전세’ 21.7%, ‘보증금 있는 월세’ 5.6%, ‘보증금 없는 월세’ 1.0%, ‘무상’ 1.7%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자기 집’ 59.7%, ‘전세’ 19.8%, ‘보증금 있는 월세’ 15.6%, ‘보증금 없는 월세’ 1.5%, ‘무상’ 3.3%였다.

그림 7-14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주거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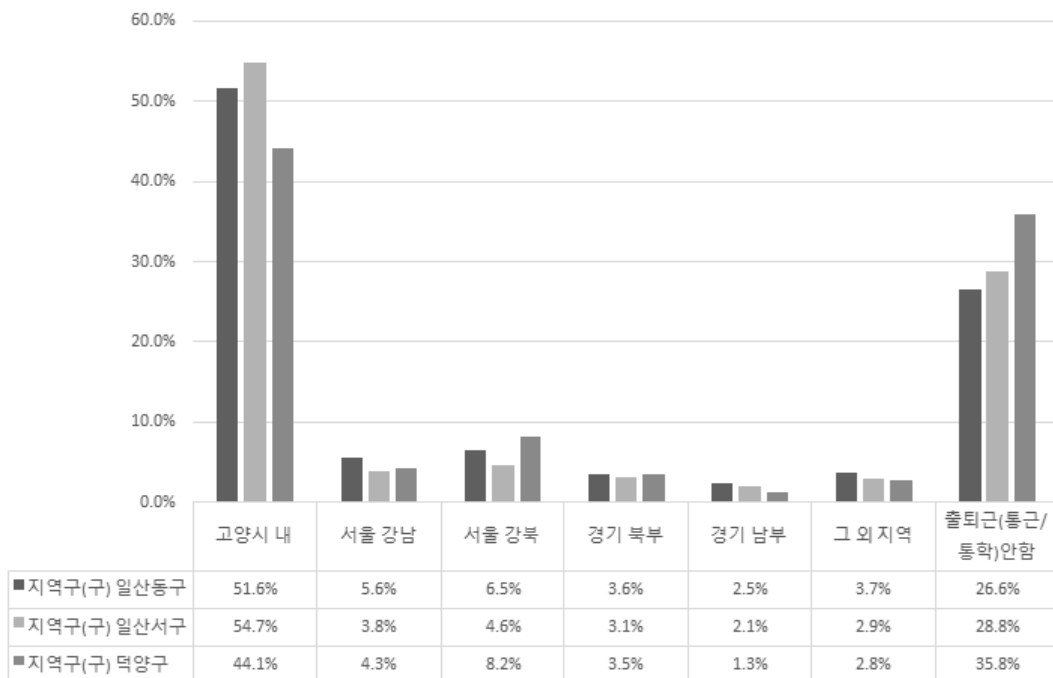
12. 출근 및 통학 지역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구에서 ‘고양시 내’로 출근 및 통학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일산동구의 경우 ‘고양시 내’ 51.6%, ‘서울 강남’ 5.6%, ‘서울 강북’ 6.5%, ‘경기 북부’ 3.6%, ‘경기 남부’ 2.5%, ‘그 외 지역’ 3.7%, ‘출퇴근(통근/통학)안함’ 26.6%였다. 일산서구의 경우 ‘고양시 내’ 54.7%, ‘서울 강남’ 3.8%, ‘서울 강북’ 4.6%, ‘경기 북부’ 3.1%, ‘경기 남부’ 2.1%, ‘그 외 지역’ 2.9%, ‘출퇴근(통근/통학)안함’ 28.8%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고양시 내’ 44.1%, ‘서울 강남’ 4.3%, ‘서울 강북’ 8.2%, ‘경기 북부’ 3.5%, ‘경기 남부’ 1.3%, ‘그 외 지역’ 2.8%, ‘출퇴근(통근/통학)안함’ 35.8%였다.

그림 7-15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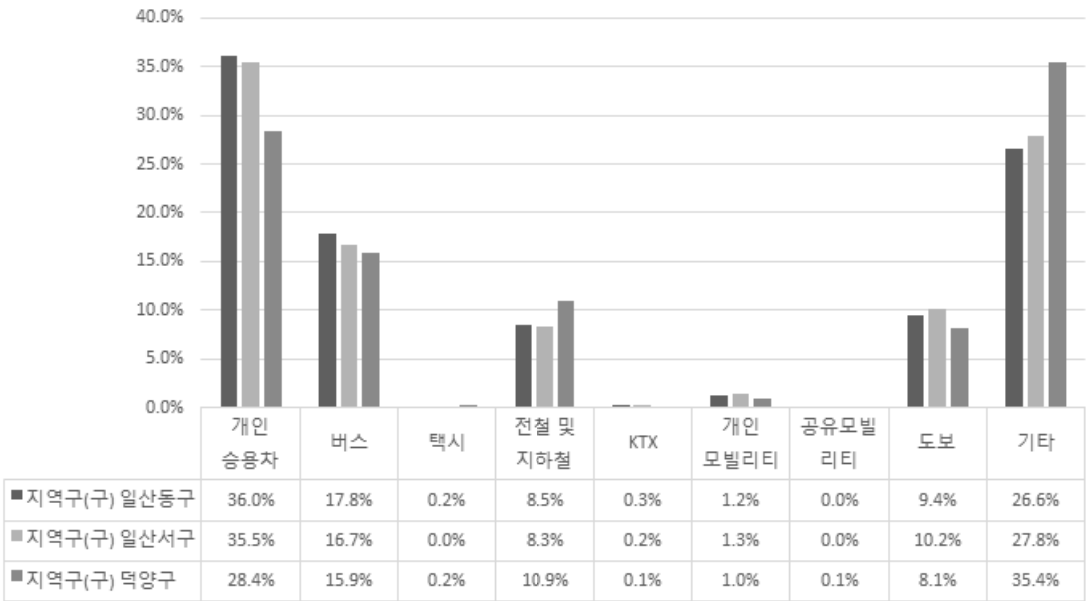


13. 출근 및 통학 수단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은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와 서구의 경우 ‘개인 승용차’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덕양구의 경우 ‘기타’가 가장 높았다.

일산동구의 경우 ‘개인 승용차’ 36.0%, ‘버스’ 17.8%, ‘택시’ 0.2%, ‘전철 및 지하철’ 8.5%, ‘KTX’ 0.3%, ‘개인 모빌리티’ 1.2%,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9.4%, ‘기타’ 26.6%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개인 승용차’ 35.5%, ‘버스’ 16.7%, ‘택시’ 0%, ‘전철 및 지하철’ 8.3%, ‘KTX’ 0.2%, ‘개인 모빌리티’ 1.3%, ‘공유 모빌리티’ 0%, ‘도보’ 10.2%, ‘기타’ 27.8%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개인 승용차’ 28.4%, ‘버스’ 15.9%, ‘택시’ 0.2%, ‘전철 및 지하철’ 10.9%, ‘KTX’ 0.1%, ‘개인 모빌리티’ 1.0%, ‘공유 모빌리티’ 0.1%, ‘도보’ 8.1%, ‘기타’ 35.4%였다.

그림 7-16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출근 및 통학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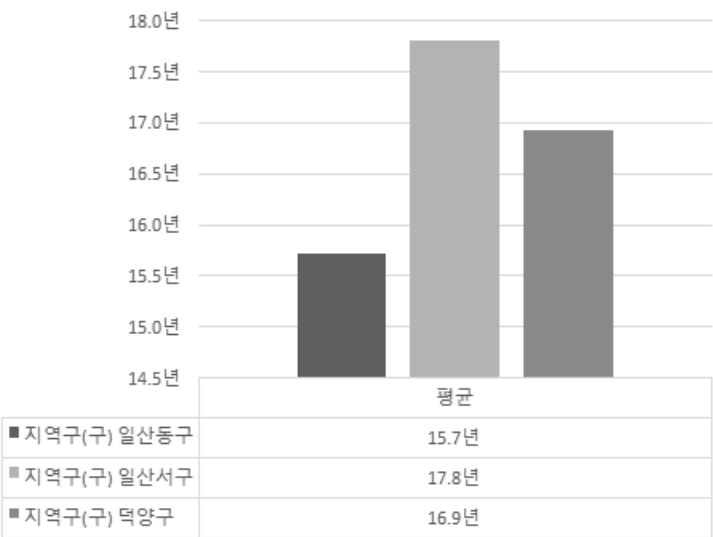


14. 거주 기간 및 지속 여부

(1) 거주 기간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평균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의 경우 15.7년, 일산 서구의 경우 17.8년, 덕양구는 16.9년이었다.

그림 7-17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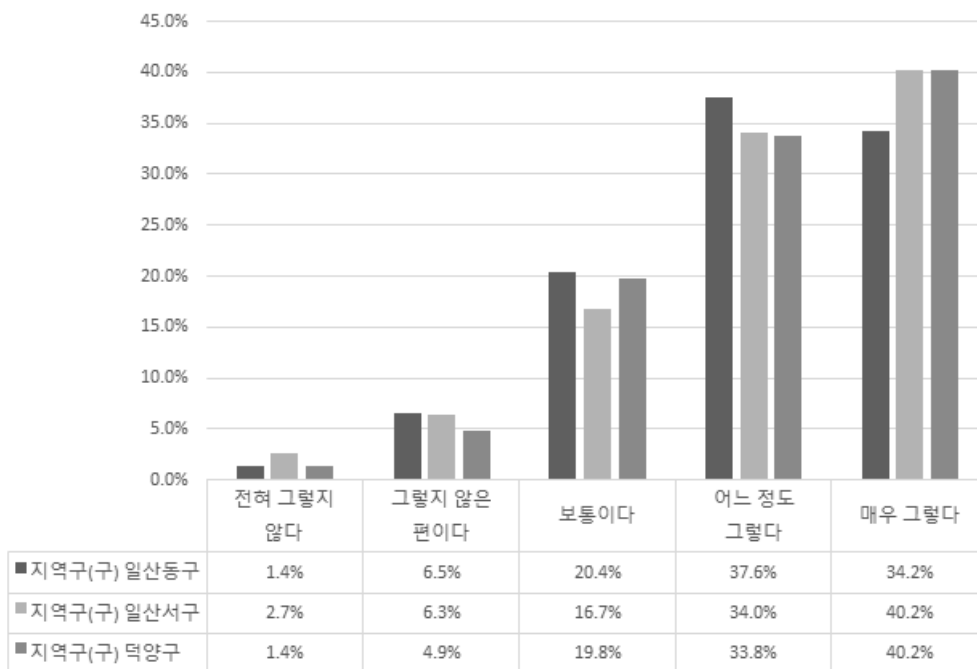


(2) 지속 의향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은 다음과 같다. 일산동구의 경우 ‘어느 정도 그렇다’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일산서구와 덕양구는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산동구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6.5%, ‘보통이다’ 20.4%, ‘어느 정도 그렇다’ 37.6%, ‘매우 그렇다’ 34.2%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2.7%, ‘그렇지 않은 편이다’ 6.3%, ‘보통이다’ 16.7%, ‘어느 정도 그렇다’ 34.0%, ‘매우 그렇다’ 40.2%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9%, ‘보통이다’ 19.8%, ‘어느 정도 그렇다’ 33.8%, ‘매우 그렇다’ 40.2%였다.

그림 7-18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거주 지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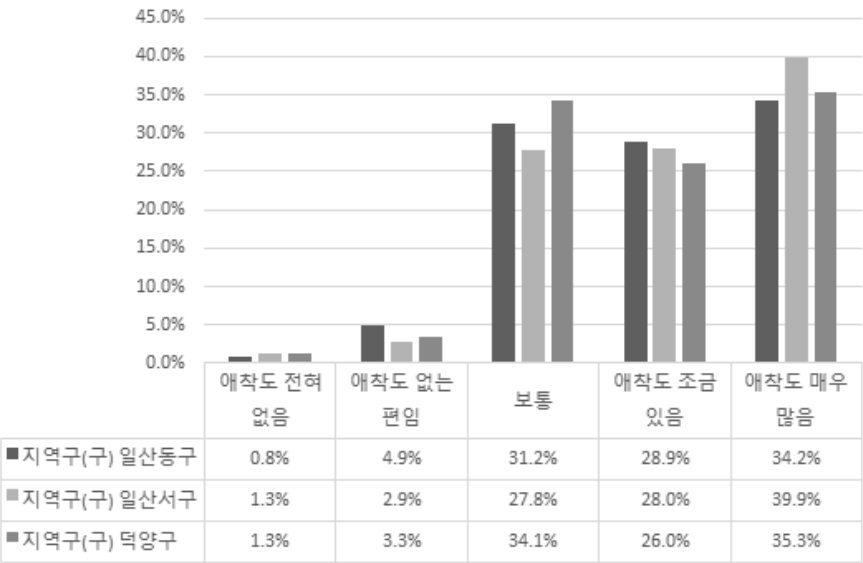
15. 애착도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구에서 ‘애착도 매우 많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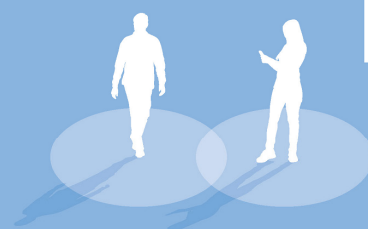
일산동구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0.8%, ‘애착도 없는 편임’ 4.9%, ‘보통’ 31.2%, ‘애착도 조금 있음’ 28.9%, ‘애착도 매우 많음’ 34.2%였고 일산서구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3%, ‘애착도 없는 편임’ 2.9%, ‘보통’ 27.8%, ‘애착도 조금 있음’ 28.0%, ‘애착도 매우 많음’ 39.9%였으며, 덕양구의 경우 ‘애착도 전혀 없음’ 1.3%, ‘애착도 없는 편임’ 3.3%, ‘보통’ 34.1%, ‘애착도 조금 있음’ 26.0%, ‘애착도 매우 많음’ 35.3%였다.

그림 7-19 거주지별로 살펴본 고양시민의 고양시 애착도





GOYANG
RESEARCH INSTITUTE
DATA CENTER



제 8 장

부록. 조사표

조사원 배정지역	구	동	날짜	설문번호	조사원명
-------------	---	---	----	------	------


 조사 검증원

고양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산하 기관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시민이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고양시 거주민의 기본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고양시 기초데이터로만 활용할 것이며, 통계목적 외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로 처리됩니다. 설문에 응해 주시어 보다 나은 고양시의 정책 발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관련 문의> 2020년 7월 | 고양시정연구원 조사 및 통계 담당 : 031-8075-8388

문1) 실례지만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학 또는 중퇴 포함)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문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⑤ 없다(무교)

문3) 실례지만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종사자 |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림어업축산업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자영업 | ⑪ 가정주부(전업주부) |
| ⑫ 학생 | ⑬ 무직 | ⑭ 기타() |

3-1 (직업 ① ~ ⑩번 임금 근로자 대상)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근무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주 6일제 ② 토요일 격주 휴무제 ③ 주 5일제 ④ 월 1회 휴무제
⑤ 격일 근무제 ⑥ 기타()

3-2 (직업 ① ~ ⑩번 임금 근로자 대상) 귀하의 근무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1년이상) ② 임시직(1개월이상~1년미만) ③ 일용직(1개월미만)

3-3 (직업 ① ~ ⑩번 임금 근로자 대상) 귀하는 시간제로 일하십니까? 전일제로 일하십니까?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③ 기타

문4) 귀하의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 | ②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
| ③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 ④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
| ⑤ 정부의 보조금 | ⑥ 종교 및 복지단체 보조금 |
| ⑦ 친인척의 보조금 | ⑧ 기타 |

문5)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이자소득 포함)

- | | | | |
|-------------|-------------|-------------|-------------|
| ① 99만원 이하 | ② 100~199만원 | ③ 200~299만원 | ④ 300~399만원 |
| ⑤ 400~499만원 | ⑥ 500~599만원 | ⑦ 600~699만원 | ⑧ 700만원 이상 |

문6) 귀하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하층 ② 중하층 ③ 중상층 ④ 최상층

Abstract

An Analysis of Goyang Citize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in Hee Yun*

The study is intended to make a general assessment of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Goyang citizens. The study's results will be used to establish city policies and provide clear policy directions by analyzing Goyang citizens' individual and group attributes. The study explores general sociodemographic questions, including household structure (occupation, income, and monthly average income), commute to work/school, hometown attachment, and religion.

The survey period was from July 20, 2020 to August 7, 2020. Goyang residents across 39 administrative regions of Goyang City were the survey's target, categorized into sex, age, and regional samples. The study's total sample size was 2,395, but only 2,281 valid samples wer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sampling error verification.

For the field study, two field workers were dispatched to every district across 39 sample districts (see the attachment on the Field Worker Dispatch Map). The field workers had to undergo training on the survey and health safety measures before their dispatch to the field. Two investigators were also dispatched to each of the 39 districts, and study's target subjects underwent stratified sampling.

The results of the main survey are as follows.

The most popular education level was "college graduate" (54.4%). Other educational levels included "less than middle school" (5.7%), "high school diploma" (33.3%), and "higher than graduate school" (6.5%).

In terms of religion, "no religion" had the highest percentage (43.8%), followed by "Christian" (26.8%), "Catholic" (13.6%), "Buddhist" (13.5%), and "others" (2.2%).

In terms of occupation, "housewife" had the highest proportion at 14.6%. This was followed by "unemployed" (13.5%); "self-employed" (13.2%); "office worker" (10.8%); "service worker" (9.3%); "others" (8.6%); "student" (6.5%); "manager" (5.4%); "simple worker" (3.2%); "salesperson" (2.1%); "technicians and craftsman, skilled in related field" (1.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livestock worker" (0.4%); and "equipment, mechanical operation and assembly personnel" (0.4%).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In terms of working days, “five days a week” had the highest percentage (58.5%). This was followed by “six days a week” (18.9%), “others” (13.1%), “off on alternate Saturdays” (4.6%), “work every other day” (3.7%), and “off once a month” (12%). Work type was distributed as follows: “regular (more than one year)” at 77.1%, “temporary (less than a year)” at 19.6%, and “day-to-day (less than one month)” at 3.4%. For respondents’ working hours, “full-time” was highest at 69.3%, followed by “part-time” at 21.1% and “others” at 9.5%.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working income of the head of household” had the highest percentage with 59.6%, followed by “working income of the spouse and other household members” (24.0%), “others” (6.7%), “public, private pension, and retirement fund” (3.9%), “government assistance” (3.1%), “property income” (interest, dividends, rent)” (2.0%), “assistance from relatives” (0.4%), and “assistance from religious and other welfare assistance” (0.3%).

The highest portion of average household income was “2 million to 2.99 million Korean won” at 20.8%, followed by “3 million to 3.99 million” at 15.3%, “4 million to 4.99 million” at 14.5%, “5 million to 5.99 million” at 12.2%, “higher than 7 million” at 11.0%, “1 million to 1.99 million” at 9.0%, and “6 million to 6.99 million” at 7.3%.

When acknowledging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people associated themselves most frequently with “middle to low class” (14.5%), followed by “middle to low class” (57.4%), “upper middle class” (27.8%), and “upper class” (0.4%).

In terms of political affiliation, people associated themselves the most with “progressive liberal” (45.5%), followed by “progressive conservative” (25.5%), “liberal” (16.7%), and “conservative” (12.3%).

The average size of a family in the study’s sample was 3.17 persons. People mostly lived with their “spouses,” followed by “children (not married),” “parents (biological parents),” “live alone,” “others,” “children (married),” “parents (in-laws),” “grandchildren,” and “relatives.”

The most popular living type was “apartments” (73.8%), followed by “multifamily units” (13.9%), “single-family units” (7.9%), and “others” (4.3%).

In terms of property ownership, 64.2% of the study’s respondents lived in their own homes, followed by “jeonse” (20.8%), “monthly rent with deposits” (11.4%), “free” (2.3%), and “monthly rent without deposits” (1.3%).

In terms of work/school commute, 48.7% of Goyang residents answered “within Goyang City,” followed by “I do not commute” (31.6%), “Seoul Gangbuk” (6.9%), “Seoul Gangnam” (4.6%), “Northern Gyeonggi” (3.4%), and “others” (3.1%). The smallest category was “Southern Gyeonggi” at 1.8%.

The most popular form of commute medium was “personal vehicle” (32.2%), followed by “others” (31.2%), “bus” (16.6%), “subway” (9%), “walking” (8.9%), “personal mobility” (1.1%), “KTX” (0.2%), and “taxi” (0.1%).

The average length of residence was 16.8 years, and 38.5% of respondents said “very much so” when asked if they intended to stay in Goyang City for a longer period. “Somewhat yes” had a percentage of 34.9%, “average” had 19.3%, “not likely” had 5.7%, and “not at all” had 1.7%. Overall, there was a dominant positive opinion at 73.4%.

In terms of respondents’ attachments to Goyang City, 63.3% of Goyang residents expressed that they do have attachments to Goyang City. “Highly attached” and “a little attached” were high at 36.0% and 27.3%, respectively. Finally, “no attachment at all” and “most likely not attached” were comparatively low at 1.1% and 3.7%.

